금주의 법구–〈불유교경〉
권력자와 결탁해 서민을 업신여기지 말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만족할 줄 알라.
지나친 부를 탐하지 말아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4월 26일)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호국영령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민족과 국가를 수호한 애국애족 열사들의 애국심이 국토를 물들인다. 여기엔 현장에서 군불교 발전과 포교에 진력하다 산화한 군승도 빠질 수 없다. 사진은 현충일을 앞둔 6월 1일 해군본부 일공 이경한 법사를 비롯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군승들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군승 묘역을 참배하고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 사진=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세계 청소년 불자 결집…계층포교 활성화 '기대'

대한불교청년회, 8월 말 3박4일 'IBYE캠프' 개최

18개국 청소년 등 300명 참가
불국사 · 고운사 주요 무대 활용
오는 17일 동국대서 만해백일장
모바일 회원증 개발도 진행 중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10월 태국서 열린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WFBY) 총회에서 이웃나라와 각축전을 벌여 '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Intercultural Buddhist Youth Exchange, 이하 IBYE)' 국내 유치에 성공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 이하 대불청)가 올 하반기 다양한 사업들로 계층포교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제행사 유치 · 국내행사 확대

대불청의 올해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2023 IBYE는 WFBY 소속 18개국 38개 단체 청소년 및 지도자, 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하는 전 세계 청소년불자들의 교류의 장이다. 올해 대회 슬로건은 생명살림.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속에서 찾는 우리들의 미래'라는 부제 아래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3박4일간 불국사와 고운사 등 경북 일대에서 펼쳐진다.

IBYE의 국내 유치는 지난 2018년 3월 제주불교청년회가 제주4.3사건을 주제로 개최한 데 이어 약 5년 만이다. 지구 · 지회 단위가 아닌 대불청 차원에서의 유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첫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불국사 마당에서 펼쳐지는 환영의 밤 콘서트로 막을 올린다. 콘서트 무대에는 젊은 불자 연예인과 풍물패 · 댄스 · 찬불가 등 종립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등회를 소개하고, 부처님오신날 봉축율동처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율동을 사전에 안내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화합하는 대동한마당을 연출할 계획이다.

2일차부터는 본격적인 한국불교문화 체험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우선 현재 경주 열암곡 마애불을 일으켜 세우는 조계종 핵심사업 '천년을 세우다'의 의미를 전해 1700년 한국불교 역사를 세계에 알린다. 이어 '생명살림'이라는 대회 주제에 맞춰 일회용품 사용 금지, EM 활용,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입 등을 실천하고 있는 국내 사찰의 활동을 소개하고, 해외 불교의 사례도 공유한다.

장정화 대불청 회장은 "생명살림을 위해서는 현재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기후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많은 구성원들이 공감했다"며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불자들이 앞장서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한다는 결의문 발표나 선언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일차에는 주 무대를 예천국제양궁장으로 옮긴다. 우리나라 올림픽 효자 종목이기도 한 양궁은 많은 선수들이 명상을 병행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20~30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청소년불자들이 만나 양궁을 체험하고, 함께 명상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상월결사 108원력문을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등으로 통역해 108배를 올리며 불교 대중화를 위한 한국불교의 노력을 느낄 수 있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저녁에는 각국 청소년들이 나라별 장기자랑을 펼치며 대단원의 마무리를 장식한다.

대불청은 IBYE 외에도 오는 6월 17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제43회 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만해백일장 1회 대상 수상자인 윤재웅 총장이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 올해는 대불청과 동국대의 공동 주최로 행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중강당 등 행사장소를 지원하고, 동국대 이사장상과 총장상 등을 후원키로 했다. 또 '문학인의 산실'이라 평가받는 동국대에서 현직 교수 3명이 심사위원으로 힘을 보태고, 재학생들은 참가자를 위한 행사 안내 등 봉사에 나선다.

백일장이 끝난 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문학계의 거장 염무웅 영남대 명예교수 초청 강연을 비롯해 염승숙 소설가, 송석주 영화평론가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 음악공연 등이 이어진다.

재정자립 · 회원 혜택 개선도

대불청은 국제 · 국내 행사뿐만 아니라 조직 내실을 다지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 성북구에 마련한 만해평화센터가 매입 이후 3년이 지나 올 연말부터 수익사업이 가능해져 무인카페나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을 고민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상품 판매를 대행하고, 수익금 일부를 대불청이 받는 방향도 거론되는데 이사회 결의가 우선이다.

대불청 정회원과 후원회원인 준회원의 혜택 확대를 위한 모바일 회원증 도입도 진행되고 있다.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대불청이 그동안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들의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대불청은 앞서 호텔, 상조, 차 및 다구, 병원, 사찰음식점, 구강제품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장정화 회장은 "첫 임기를 마치고 재임해 소임을 보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적어도 차기 회장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반을 닦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며 "한국불교의 청년 계층이 보다 탄탄해지도록 자부심을 느끼게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분사 마친 대자유인 되라"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결제 법어
전국 선원 6월 3일부터 하안거 정진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오는 6월 3일 계묘년 하안거 결제를 앞두고 수좌들에게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다.

성파 대종사는 하안거 결제 법어에서 "도(道)를 배우는 사람이 참됨(識眞)을 알지 못하고, 다만 본래의 알음알이(識神)를 잘못 알기 때문이다. 끝없는 옛적부터 생사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본래의 몸(本來身)이라 하도다", "마음자리를 수시로 말했고, 보리 또한 그럴 뿐이네, 사(事)와 이(理)에 모두 걸림이 없으면, 나는 자리가 곧 나지 않는 자리일세"라는 두 편의 게송을 통해 안거 수행에 정진할 수좌들에게 모든 방편이 곧 수행이라는 법어를 전했다.

이어 "금년 결제의 인연으로 일체무명이 소멸하고 본성이 확연히 드러나 본분사를 마친 대자유인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기2567년 계묘년 하안거 결제일인 6월 3일부터 전국 100여 선원에서 약 2000여 명의 수좌가 정진에 들어갔다. 신성민 기자

〈종정예하 및 총림 방장 법어 9면〉

BBS불교방송 사장 후보 공모

오는 7월 21일까지

BBS불교방송 차기 사장 후보 공모가 시작됐다. BBS 사장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은 "불교방송(BBS) 제11대 사장 후보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후보자 자격 요건은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불자로서, 불교 현대화 의지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불교방송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다. 진흥원은 "방송의 경쟁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조직 경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불교방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분을 사장 후보로 모시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7월 21일까지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영계획서, 불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서류 제출은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진흥원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진흥원 이사회에서 최종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재)불교방송 이사회에 복수 천거하게 된다. (02)719-2606

윤호섭 기자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
2023년 대행선연구원 제7회 학술대회
2023. 06. 17.(토)
09:30~17:30
동국대 혜화관 2층 고순청세미나실
주최 대행선연구원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개회식
■ Section 1
사회 : 수경스님 (비구니승가연구소장)
제1발표
• 논제 : 봉려관과 제주불교 지평의 확장
• 발표 : 혜달스님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 논평 :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
제2발표
• 논제 : 담연당 선경의 선사상
• 발표 : 여현스님 (동국대)
• 논평 :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제3발표
• 논제 : 김일엽 스님의 선 사상 고찰
• 발표 : 경완스님 (김일엽문화재단 부이사장)
• 논평 : 주경스님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
■ 시상식
제5회 묘공학술상시상식
제5회 묘공학술장학증서수여식
■ Section 2
사회 :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제4발표
• 논제 : 비구니 은영스님의 생애와 보문종 창종의 의의
• 발표 :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 논평 : 하춘생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과정 책임교수)
제5발표
• 논제 : 가지산 석남사 인홍스님의 삶과 사상
• 발표 : 일중스님(동국대 강사)
• 논평 : 정운스님(전,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제6발표
• 논제 : 대행선(大行禪)의 마음공부와 주인공 명상
• 발표 : 윤종갑 (동아대 초빙교수)
• 논평 : 이상호 (서강대)
■ Section 3
토론광장
사회 :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 마무리말씀

자료집 다운로드
자료집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www.daehaeng.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참석(사전접수)도 가능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 합니다.
YouTube 한마음선원 으로 검색하세요.
• 참석문의 : 031)470-3276/3277(대행선연구원) • E-mail : ds7788@hanmaum.org

‘붓다의 딸’들 서울로…세계 위기 극복 논한다

18th SAKYADHITA SEOUL 2023 샤카디타 세계대회

18차 샤카디타 대회 6월 23일 개막
27일까지 서울 코엑스, 봉은사 일대
‘위기의 세상에 깨어 있기’ 주제로
27편 논문발표, 문화행사·사찰순례
30개국서 여성불자 3000여 명 집결

한눈에 보는 샤카디타 서울 대회

아침명상	매일 아침 1시간씩 진행
세계의 명상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계 유명 명상지도자 3인의 명상 진행
논문발표	논문 당 20분씩 한 세션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 응답시간, 장소는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워크숍	샤카디타 대회의 독특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 10개의 워크숍이 동시에 2층의 여러 회의실에서 열리고, 각 워크숍은 90~120분간 진행.
법문	6월 24일 저녁 7시~ 8시 30분
문화공연	6월 25일 저녁 7시~ 9시
사찰순례	공식 대회가 끝난 후 6월 28일~30일 2박 3일간 진행. 월정사, 백담사, 낙산사를 방문해 사찰 참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예정.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전국비구니회와 샤카디타코리아가 주관하는 ‘제18차 샤카디타대회’가 6월 23~27일 서울 코엑스와 봉은사 일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위기의 세상에 깨어 있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학술발표와 문화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논문발표와 한국과 세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워크숍,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사찰순례가 준비됐다. 특히 사찰순례는 ‘한국의 자연, 천년고찰, 그리고 명상’을 주제로 명상과 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열리는 것이라 더욱 뜻깊다. 각종 행사들에서는 30개국 3000여 명의 전세계 여성불자들이 팬데믹과 기후위기, 전쟁 등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으로 빠뜨린 위기 앞에서 당당히 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총 29건의 워크숍에서는 각국 불교문화를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다. 한국불교계에서는 사찰음식과 탁본, 발우공양 등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계의 수행법을 체험해볼 수 있는 ‘세계의 명상’ 시간은 티베트 불교 명상과 테라와다 위파사나 명상, 미국 선불교 명상을 직접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매일 저녁 예불은 팔리어와 티베트어, 베트남어 등 동참 국가의 언어와 의식으로 진행, 각국의 불교 의식에 대한 이해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했다.

9건의 포스터 발표는 환경과 불교계 성평등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논문발표는 △한국의 불교여성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무상성 △깨달음의 추구: 비구니 수계의 현황 △순례, 수행,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존재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적용하기 등 다섯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총 27편의 발표 논문 중 황수경 동국대 명상심리상담학과 겸임교수의 ‘현대사회의 생활 속 수행의 필요성: 대행 선사의 생활선을 중심으로’는 대행 선사의 전법 특성을 통해 불교가 당면한 문제와 앞으로의 실천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혁신적 리더십의 성과와 관련된 요소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초점을 둔 동국대 불교학부 조교수 정완 스님의 ‘한국불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리더십’은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 리더십 특성에 대한 불교적 기대와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 사회자본, 여성리더 수용 등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인종주의, 자본주의, 환경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불교 페미니즘 정치학의 가능성을 들여다본 장리우의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선 불교 페미니즘 정치학’, 비구니 사원이 외진 지역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논의하고 비구니사원과 지역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텐진 양첸의 ‘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 몬 지역 비구니사원의 발전’, 현대적 맥락에서 여성 존중의 역사적 담론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 페마 칸트로의 ‘왜 불자여성은 존중받아야 하나:14세기 티벳불교의 관점에서’ 등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비구니회장이자 샤카디타 대회장 본각 스님은 “위기의 시대, 여성불자들의 역할과 극복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한국에 모인 여성불자들이 서로 다른 현실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불자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깊은 성찰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2)6288-632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산재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언을 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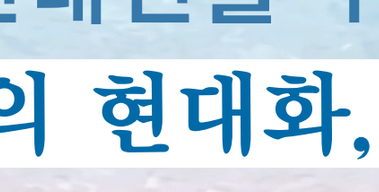
조 장관은 “불교계 봉사단체들의 활발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정부 차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에서도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돕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범종 스님 “직지는 한국불교 자부심”

6월 7일, 서울 중국문화원서
인쇄문화 강연 ‘직지’로 설명



“직지심체요절은 한국 선불교의 자부심이죠.”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이 6월 7일 서울 주한중국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강의 ‘한-중 인쇄문화와 훈민정음’에서 “직지는 깨달음을 알려주는 불교경전”이라며 마음을 바르게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직지)의 핵심대목을 강조하고 이 같이 말했다.〈사진〉

이날 범종 스님은 직지(直指)는 ‘마음을 바르게 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인간의 본성을 찾는 과정을 소를 찾는 과정에 비유해 그린 심우도(尋牛圖)를 활용, 불교 참선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팔만대장경, 석보상절, 월인석보 등을 통해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인쇄문화를 꽃피운 한국불교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범종 스님은 4월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열린 특별전 ‘직지’를 기념하며 4월 12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직지의 편찬배경과 한국불교의 인쇄문화유산’을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 범종 스님은 “서지학적으로 현존하는 최초 금속활자로서 직지에 대해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관심은 있지만 대다수가 직지 내용에 대해 잘 몰라 직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리는 강연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지된 직지는 백운 스님(1298~1374)이 고승들의 어록을 가려 엮고 그 제자들이 간행했다.

참선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주제들과 선불교 진리를 담고 있어 제자들을 위한 시침서로 사용됐다.

독일에서 1455년 제작된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 앞선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상하 2권이 먼저 인쇄됐다. 1년 뒤 1378년 취암사에서 목판으로 다시 인쇄됐다.

임은호 기자

Weekly in 자비나눔

화엄사, ‘천년을 세우다’ 기금 전달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가 종단 주요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기장 해동용궁사 주지 덕림 스님은 6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종책불사를 위해 마음을 내줘 고맙다”면서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덕문 스님은 “화엄사와 해동용궁사, 천은사, 사성암 등의 사부대중이 뜻을 모았다. 불사가 원만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우도규 작가, 선화여고 장학금 전달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에서 부처님오신날 특별전을 개최했던 우도규 작가는 6월 7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동대부속 영천 선화여고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지정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과 총무원 총무부장 호산 스님 등이 배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예술가들은 생활이 빠듯함에도 이 같이 큰 기부를 해 주셔서 놀랐다”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우도규 작가는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농협카드, 아미타요양병원에 에어컨 100대



NH농협카드가 조계종 직영 스님 전문요양병원인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에 에어컨 100대를 기증하며 병원 발전을 염원했다.

윤상운 NH농협카드 사장은 6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에어컨 100대를 기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아미타요양병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평생 수행과 포교에 전념한 스님들이 여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백명숙 회장, ‘천년을 세우다’ 기금 전달



백명숙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회장은 6월 8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주요 종책불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줘 감사하다. 앞으로 더 많은 불자들이 불사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사회부장 범종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진경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지안 스님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 삶·사상 조명한다

대행선연구원 6월 17일 제7회 학술대회 개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6월 17일 오전 9시 30분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제7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엽 스님, 봉려관 스님을 비롯해 은영 스님, 인홍 스님, 대행 선사 등 근·현대 시기 한국 비구니계를 이끌었던 선지식들의 업적과 사상을 연구·조명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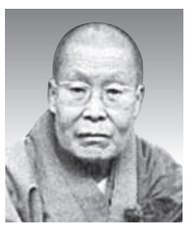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봉려관과 제주불교 지평의 확장'에서 근대 제주불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봉려관 스님의 사상을 조명한다. 혜달 스님은 "근대 제주불교 최초 비구니인 봉려관은 한라산에 관음사를 최초 창건했고, 제주와 일본 오사카에 10여개 사찰을 중·창건했다. 200여 년간 지속된 제주불교 암흑기를 끝내고 마침내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웠다"고 강조하며 힘겨운 시대상황 속에서 봉려관이 보인 대담하고 진취적인 행보를 주목해야 함을 역설한다.

'담연당 선경의 선사상-삶과 수행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는 여현 스님(동국대 박사)은 유활문도회의 수장으로 수행에 매진한 담연당 선경 스님의 선사상을 살필 예정이다.

여현 스님은 "선경 스님은 질곡이 많은 어려운 시대를 살다 가신 비구니로서 철저하게 수행자의 길을 걸었고 참선 수행을 배운 이래로 한 순간도 화두를 놓지 않았다"면서 수행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선경 스님의 사상을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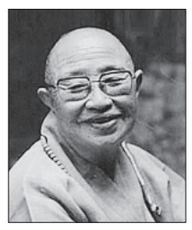
김일엽문화재단 부이사장 경완 스님은 '김일엽 스님의 선사상 고찰'을 통해 근대 선각자인 일엽 스님의 수행자적 면모를 저작들을 통해 되짚는다. 경완 스님은 일엽 스님의 마지막 작품집인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를 바탕으로 만년에 일엽 스님의 사상을 살피고 그 중심에 생명과 공(空) 사상이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봉려관 스님


선경 스님


일엽 스님


은영 스님


인홍 스님


대행 선사
〈학술대회 발표 논문 순〉

일엽·봉려관·대행 스님 등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 조명
묘공학술상·장학증서 수여도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비구니 은영 스님의 생애와 보문종 창종의 의의'를 통해 세계불교사에서 유례 없는 비구니 종단인 대한불교보문종(이하 보문종)을 창건한 은영 스님의 삶과 사상을 살핀다. "은영 스님의 생애는 걸출한 한 비구니의 개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현대 한국 여성불교 역사의 장편 대하드라마였다"라고 술회한 전 전문연구원은 은영 스님이 겪었던 중요 사건들을 한국 여성불교사의 거시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다.

'가지산 석남사 인홍 스님의 삶과 사상'을 발표하는 동국대 강사 일중 스님은 현대 비구니 선지식 인홍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조명한다. 일중 스님에 따르면 인홍 스님의 선사상은 선밀쌍수(禪密雙修), 복혜쌍수(福慧雙修) 사상과 계율·위의 중시 사상으로 정리된다. 인홍 스님의 이런 사상들은 가지산 석남사의 독특한 수행 가풍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일중 스님의 설명이다.

윤종갑 동아대 초빙교수는 '대행선(大行禪)의 마음공부와 주인공 명상'을 통해 대행선 특징과 요체를 살핀다. 윤종갑 초빙교수는 위빠사나(vipassana)를 바탕으로 한 대행선은 붓다의 정통적 수행을 계승했음을 밝히며 대행 선사만의 독창적인 개념인 '한마음 주인공'은 매우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개념임을 강조한다.

또한 이날 학술대회의 논평자로는 김광식 前 동국대 특임교수,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하춘생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과정 책임교수, 조계종 前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 이상호 서강대 박사가 참여한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질곡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 비구니 승단이 유지·발전할 수 있던 것은 눈 밝은 선각자들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지난해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을 살폈다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의 면면들을 연구·조명하려 한다. 많은 대중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5회 묘공학술상시상식과 제5회 묘공학술장학증서 수여식도 진행된다.

올해 묘공학술상은 대상 없이 우수상 2명이 수상했다. 수상자로는 김경집 한국전통문화대 외래교수(묘공 대행선사의 한마음선원 설립과 그 시대적 의의)와 조승미 경북대 동서사상연구소 전문연구위원(중국 명말청초 비구니선사 황금기의 조명)이 선정됐다.

묘공학술장학에는 석사 부문에 나의진(동국대 WISE캠퍼스)·안홍민(하버드대), 박사 부문에 이혜빈(오슬로대), 박사수료 부문에 석보원(동국대 WISE캠퍼스) 씨가 선정됐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종교지도자 오찬에 참석한 각 종교 대표들이 담소를 나누며 걷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진우 스님 "국민 마음 평화 위해 정부와 노력"

종교지도자들,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불교 등 각 종교 대표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9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인사했다.

종교지도자를 대표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노력해달라"면서 "종교계와 정부가 국민들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신성민 기자

"마음 평안할 때 행복 세상 열린다"

조계종 대표단, 태국서 열린 UN베삭데이 참석

세계 65개국 1200여 명 동참
소운 스님 동물해방 발제 호응

부처님의 탄생·깨달음·열반을 기념하는 '유엔(UN) 베삭 축제'가 베트남에서 열린 가운데 조계종 대표단이 공식 초청을 받고 참석했다.〈사진〉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권한대행 정범 스님을 단장으로 한 조계종 대표단은 지난 6월 1~2일 이틀간 태국 야유타야 마하쭐라롱콘라자비타얄라야 대학교 및 방콕 유엔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제18차 유엔 베삭 축제'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대표단을 비롯해 태국 승왕(Somdet Phra Ariyavangsagatayana), 중국불교협회 연각 스님, 베트남 불교중앙협회 종정(Most Ven. Thich Tri Quang) 등 65개국 1200여 명의 불교 지도자, 종교학자 등이 동참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올해 베삭데이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이번 제18차 베삭데이 기념행사에 조계종은 해외특별교구 교구장 권한대행 정범 스님을 대표로 조계종 사회국장 현우 스님, 포교국장이자 제9기 국제교류위원 문종 스님, 제9기 국제교류위원 경완 스님, 이미란 국제팀장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또 종립 동국대에서도 황순일 교수를 대표로 교수진 및 관계자 10여 명이 참가했다.

6월 2일 열린 공식 개막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표단장 정범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내 안에 존엄함을 깨닫고 청정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세상을 열 것"을 강조했다. 먼저 팬데믹 종결을 위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모든 혐오, 폭력, 질병 등 생명을 괴롭히는 것들이 사라지길 발원했다.

이번 베삭데이 기념행사에서 진행된 3차에 걸친 패널 토론에서는 △세계평화달성을 위한 불교적 지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불교적 조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및 인도주의 발전에 대한 불교적 기여를 주제로 세계불교 석학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두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부산 동명대학교 교수 소운 스님이 '깨달음을 통한 동물해방, 생태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패널토론을 통해 결의된 이번 제18차 유엔 베삭데이 방콕선언문에서는 세계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불교의 상호 의존에 대한 인식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특히 세계 불교도들이 용서, 비폭력, 연민, 관용이라는 불교 가르침을 적용함으로써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증진할 것을 표명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세계법왕 일붕존자님 탄신 109주년 기념 및 원적 27주기 추모 대법회

일시 : 불기 2567(2023)년 6월 26일(음력 5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법요식)

◈ 행 사 : 세계법왕 일붕존자님 탄신 109주년 및 원적 27주기 추모대법회
◈ 일 시 : 불기 2567(2023)년 6월 26일 (음력 5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의령 일붕사(경남 의령군 궁유면 천정로 1202-15)
◈ 전 화 : (055) 572-7777(일붕사)
(02)777-0901(일붕문도회), (02)777-0959(일붕신문사)

● 주최 :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 ● 주관 :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의령 일붕사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일붕문도는 물론 불자 여러분들의 사내와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일붕 존자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충만하옵기를 합장 기원 드립니다.
금번 우리의 대 스승님이신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 법왕을 역임하신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탄신 109주년 기념식 및 원적 27주기 추모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국내외 계신 일붕문도(은상좌, 법상좌, 조카 상좌, 유발 상좌)는 물론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불자 여러분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옵기를 합장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67(2023)년 6월

수 석 고 문 임담 의현 방장
상 임 고 문 정각 대종사·법륜 대종사
총 재 동봉
문 장 혜운
명 예 회 장 천강
회 장 정림
수석부회장 무각·도심·광명심
사 무 총 장 서병열
사 무 국 장 배영희 합장



찻잔 든 무산 대종사…부도탑마저 중생 향하다

신흥사, 5월 31일 양양 낙산사서 부도탑 제막

중앙에 사리 봉안…사진촬영 가능
자승 스님 "대종사 유지 받들길"

양양 · 글=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설악산문을 부흥시킨 선지식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시조시인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 대종사의 부도탑이 대종사의 오도처인 양양 낙산사에 새롭게 조성됐다.

설악산 신흥사(주지 지혜)는 5월 31일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상 앞에서 무산 대종사 부도탑 제막식 및 원적 5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무산 대종사 문도회와 후학들은 대종사의 사상과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원적 5주기를 맞아 낙산사 해수관음상 앞에 부도탑을 새로 조성했다. 앞서 문도회와 후학들은 대종사 원적 3주기 추모다례재에서 신흥사 부도전에 사리탑과 비를 조성하기도 했다.

격외의 증도가로 중생을 제도했던 무산 대종사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부도탑인 만큼 새로 조성된 부도탑은 전통을 벗어나 파격의 형식으로 대중에게 나아갔다. 부도탑은 김경민 공공설치 조각가가 참여해 조성됐다. 왼쪽에는 무산 대종사의 동상이, 중앙에는 사리가 봉안되며 대종사의 시조 '파도'와 그림이 새겨졌다. 오른쪽에는 참배객 누구나 앉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 음대 현악4중주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부도탑 제막식은 △부도탑 제막 △상월 뮤지컬 합창단의 축하공연 △무산 대종사 동영상 시청 △무산 대종사 행장 소개(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인사말(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제막사(前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부도탑 봉안식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도탑 봉안식은 부도를 조성한 김경민 작가와 지역 고등학생인 김민후(속초고3)군과 고윤정(속초여고3)양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前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상월결사 회주)은 제막사에서 무산 대종사와의 인연을 소개하고 후학들이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무산 대종사는 두 번 만나 뵙기 어려운 당대 선지식"이라며 "대종사의 원적 5주기에 함께한 이 같은 인연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인연"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5월 31일 양양 낙산사에서 열린 설악 무산 대종사 부도탑 제막식에서 새로 조성된 부도탑에 헌화하고 있다.

이어 "특히 상좌스님들은 무산 대종사의 유지를 잘 받들어 지역포교와 수행 정진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면서 "대종사가 전한 가피와 법을 낙산, 보성, 양양, 강릉, 설악을 중심으로 불교중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인사말을 통해 "아프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며 중생의 고통을 아파하던 매화는 향기 장사가 아니라며 하염없이 베푸셨다"며 무산 대종사의 선풍을 추모했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무산 대종사의 유지를 이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지혜 스님은 "대종사께서는 이념, 사상, 철학, 종교를 떠나서 함께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꿨다"면서 "저희 설악산문 대중들은 대종사의 뜻을 받들어 서로 배려하고 나누면서 종단과 사회에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 및 추모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부의장 보선 · 도후 대종사와 원로의원 일면 · 원행 · 지명 · 도영 · 원각 · 법등 · 동명 대종사, 명예원로의원 성우 대종사,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법주사 주지) 등 교구본사 주지, 총무부장 호산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총림 방장 및 원로 · 중진스님들이 참석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양수 · 이철규 국회의원, 이병선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신달자 시인, 오세영 작가와 신흥사, 낙산사, 백담사 신도, 용대리 주민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해 대종사를 추모했다.

한편 무산 대종사(1932~2018)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으며 밀양 성천사로 동진출가, 인월 화상으로부터 사미계를 받았다. 젊은 시절 금오산 토굴에서 6년 동안 고행했으며 설악산 신흥사에서 정호당 성준 화상을 법사로 건당했다. 이후 신흥사 조실이 되어 설악산문을 재건했으며, 조계종 기본 선원 조실,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저술로는 〈벽암록 역해〉 〈무문관 역해〉 〈백유경 禪解-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 을 어찌 알랴〉 〈선문선답〉 등이 있다.

일찍이 시조시인으로 등단한 스님은 한글 선시조를 개척해 현대 한국문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시집으로 〈심우도〉 〈절간이야기〉 〈아득한 성자〉 〈적멸을 위하여〉 등이 있다.

또한 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설립해 만해대상, 만해축전을 개최하고 만해마을을 조성해 동국대에 기부하는 등 포교분야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세웠다. 이 같은 공로가 인정돼 국민훈장 동백장과 은관문화훈장, 조계종 포교대상, 가람시조문학상, 정지용문학상, DMZ평화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법 대응"

사노위 등 불교계, 수요시위서 방류 중단 촉구

불교환경연대, 환경단체와 본격 활동
"일본정부에 오염수 투기 권리 없다"

일본이 내년 6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불교계가 한목소리로 국제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등 피해 당사국이 국제해양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 특히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국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6월 7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수요시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추모기도회와 함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우리정부가 지금 당장 명확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한다고 촉구한 이들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발전소에 대한 형식적인 시찰단과 원자력에 대해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IAEA 판단에 기대어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커다란 과오가 될 것"이라며 "후쿠시마 발전소와 인접국가인 한국은 최대 피해가 예상되기에 완벽하고, 철저한 검증 없는 오염수 방류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노위는 일본정부가 2021년 4월,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규탄활동을 펼쳐왔다. 주기적인 기도회를 통해 "재앙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높여온 사노위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한 올해 5월 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통해 규탄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환경단체들과 연계, 6월 8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주한일본대사관에 '일본정부에게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권리는 없다'는 항의서한을 제출하기도 한 이들은 "우리는 태평양과 환경, 안전, 생명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맡긴 적 없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지구의 바다에 더불어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육지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요구했다.



불교환경연대는 환경단체들과 연계, 6월 8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불교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해안 스님은 일원 스님, 혜조 스님과 함께 6월 1일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예술로 표현하는 우리의 의사표현-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지켜내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 그린 흑등고래와 물고기 그림 등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민들에게 후쿠시마 핵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명운동도 적극 권선하고 있는 상태다. 해안 스님은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거리에 나섰다"면서 "동참과 호응해주는 시민들을 볼 때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본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일본군성노예제, 협상 아닌 선결 문제"

사노위, 제1599차 수요시위 주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6월 7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159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했다.〈사진〉 이날 시위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하는 힘찬 구호로 시작됐다. 이어 사노위는 피해자 할머니와 희생자를 위한 추모기도회를 봉행하고 시민들과 역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노위원 시경 스님은 주관단체 인사말에서 먼저 "일본군성노예피해자 할머니들이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계시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나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일침을 가했다. 스님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피해자 중심의 엄격함이 아니라 일본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면서 "성노예제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을 백 분의 일이라도 알고 있기라도 한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부정하고 있기에 반드시 성노예제 문제에 관해 일본정부의 공식 인정, 사과 배상은 절대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선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서 봉준희 이화여대 역사실천 소모임 회장은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동참자들은 일본정부에 △전쟁범죄 인정과 진상규명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 △역사왜곡 중단과 올바른 교육실시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에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앞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먼저 정의롭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임은호 기자



“자비나눔 실천하고 떠난 임이여 극락왕생하소서”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4. 생명나눔 천도재 현장

남양주=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는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장기기증자의 영가를 축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을 위한 천도재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죽음을 직면하고 있던 안면부지의 생명을 살리며 장기기증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생명나눔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장기기증자의 영가를 축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을 위한 천도재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사전 및 현장접수를 받은 영가 320위를 모시고 봉행된 천도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회원, 불암사 신도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5년부터 매년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천도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생명나눔 천도재에서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사후시신, 사후 각막, 뇌사 시 장기기증 등으로 자리이타행을 실천하며 생을 마치고 떠나간 이들의 명복을 빌고 그 뜻을 기렸다.

2017년부터는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공무희생자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천도재 날짜도 현충일로 바꿨다. 천도재를 통해 순국선열과 6.25한국전쟁 당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로 활약했던 육군사관생도들을 위한 천도재도 함께 봉행하고 있다.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는 6.25한국전쟁 당시 불암산에서 활약하던 육군사관생도들로 육군사관학교 1, 2기 생도 13명과 병사 등 20여 명이다. 이들은 불암산에서 유격대를 결성해 불삼사와 석천암 주지 스님 등의 도움으로 북한군에 끌려가던 마을 주민 100여 명을 구출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6.25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육사생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원하고자 이들 영가를 천도하는 재를 2017년부터 매년 봉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를 기리는 위패도 함께 모시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올해 천도재에서는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군과 경찰 등 호국영령과 장기를 기증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장기기증자,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의인(義人) 등 모두 320명의 영가를 모셨다.

천도재는 시련과 대령, 관욕의식, 법문, 상단불공, 관음시식 등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스님들이 독송한 회심곡에 따라 동참자들이 제단 앞에 나아가 헌화 · 헌다를 하는 동안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음들이 독송소리를 타고 불암사 경내를 장엄했다. 불교전통의식과 함께 나비춤과 바라춤에 이어 경기도 무형문화재 살풀이 이수자이자 승무 전수자인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의 극락무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극락무는 긴 대나무에 흰 창호지 술을 양쪽 끝에 달아 슬픔과 한을 온몸으로 풀어내 잡귀의 근접을 막아 저승길을 닦아내는 춤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천도재
생명보시 영가 등 320위 봉안 진행
한국전쟁 활약한 육군사관생도 천도
등산객 등 희망등록 동참 잇따르기도

이름 모를 22살 청년의 장기기증으로 새 삶을 살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히 소개하는 법문으로 동참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윤회에 대해 설명을 이어간 스님은 “현충일을 맞아 생명나눔 회원과 코로나19 희생자 및 순국선열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대중들의 뜨거운 추모와 위로를 받아 넋이 편안히 천도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며 ARS 후원 동참(060-703-1133)을 권선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잊지 않았다.

이날 천도재에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임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전투에 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구하고 작렬히 죽음을 맞은 이들의 뜻을 기리며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는 불암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천도재에는 각각의 사연으로 천도재를 올린 불자들도 있었다. 김진성 불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원으로서, 수년 전부터 천도재에 함께하고 있다”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나누고 떠난 이름 모를 영가들의 자비나눔과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이들에 감동해 천도재에 매년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불암산 경내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동참이 잇따라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천도재 참가자 외에도 등산객들도 장기기증 마음을 나누며 각자의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했다.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은 극락무를 통해 돌아가신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불자들은 천도재 동참을 통해 진정한 나눔을 실천한 영가들에 대한 기억을 되새겼다.



천도재에는 장기기증자뿐 아니라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의인 등 320명의 영가가 모셔졌다.



일면 스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히 소개하는 법문으로 동참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천도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회원, 불암사 신도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극락왕생 하소서”…창건주 원력 되새겨

부산 홍법사, 제33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하도명화 보살 ‘불법홍포’ 원력
나라에 헌신한 호국영령 추모도
‘호국의 숨결대회’ 2000명 참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경내 일원에서 ‘제33회 허공마지 홍법 바라밀재’를 봉행했다. 홍법사는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봉행하며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전법 원력을 기념하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행사는 천도재 및 백중 입재로 시작을 알렸으며 개회사 및 헌다, 삼귀의, 보현행원, 반야심경, 묵념, 경과보고 및 내빈소개, 환영사, 인사말, 추도사, 봉행사,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법석에는 주지 심산 스님과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양재생 홍법사 신도회장, 레이 리버스 목사,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 김재윤 금정구청장, 최봉환 금정구의회의장, 이영경 동국대WISE 캠퍼스 총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심산 스님은 “홍법사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추모하고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끝없는 진리를 담고 있는 허공의 참뜻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대는 항상 변하고 있지만 창건주 보살님의 원력을 이어가기 위해 홍법사 구성원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허공에 가득찬 모든 영가들이여, 모든 업장 소멸하고 성불해서 극락왕생 이루시길 바란다”며 “오늘 이 거룩한 추모법회를 이끌어주신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신도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레이 리버스 목사는 “70여 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아버지의 발자취를 생각하게 된다. 이곳에 걸려있는 국기들을 바라보며 아프간 전쟁에 참전했던 저의 옛 기억도 떠오른다”며 “한국의 발전과 많은 이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보며 기뻤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모든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말했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는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을 창립한 1990년부터 시작해 33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1996년에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로 명칭을 변경하고 두구동 신창농원(현 홍법사)에서 봉행했다. 2003년 제13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부터는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와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이 (재)불심홍법원의 뜻을 계승하고자 행사를 공동주최했으며, 2011년부터 매년 해외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초청해 그들의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홍법사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경내 일원에서 ‘제33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봉행했다.

아울러 호국의 숨결대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신과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17년부터 우란분절 백중 입재와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추모재를 함께 봉행하고 있다.

한편,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에 이어 오후에는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이 주최하는 ‘제11회 호국의 숨결 대회’가 진행됐다. 호국의 숨결대회는 글짓기, 그리기, 서예 세 분야로 진행됐으며 유치부부터 성인까지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방하착 · 육바라밀은 불자 행동강령”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초청
범어사 ‘백중 선지식 초청법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산 범어사(주지 보운)가 봉행한 ‘2023 백중지장기도 및 선지식 초청법회’에서 방하착(放下著)과 육바라밀을 강조하며 불자들의 행동강령으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6월 6일 설법전에서 백중지장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는 매년 백중을 맞아 100일 동안 지장기도를 진행하며 선지식 초청 법회를 진행해왔다. 입재를 맞아 범어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했다.

진우 스님은 법석에서 ‘무엇보다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만큼 완전히 내려놓는 경지’인 방하착과 보시행을 강조하는 육바라밀을 설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분별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면 인과가 생겨 그게 바로 업이 된다. 따라서 마음을 내려놓는 방하착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행동강령이 바로 육바라밀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시는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내 것’이라는 착(着)이 붙어있으면 보시가 아니다. 지속적인 보시바라밀 실천으로 ‘내 것’이라는 착을 소멸하는 법열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범어사가 봉행한 ‘2023 백중지장기도 및 선지식 초청법회’에서 입재법문을 설했다.

이날 법문에 앞서 진우 스님은 대웅전에서 108배를 올렸으며 대중은 진우 스님을 따라 함께 정진에 동참했다. 108배에는 종회의원 석산 스님, 총무원 사서실장 서봉 스님, 범어사 신도 및 제주 관음사 신도회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보운 스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법문을 해주시기 위해 친히 방문해주신 진우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백중지장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신도님들이 회향의 날까지 정진하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및 선지식 초청법회는 6월 6일 입재해 9월 2일 회향한다.

선지식 초청법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경내 설법전에서 진행하며, 창원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6월 10일), 원효학원 이사장 정만 스님(6월 17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6월 24일),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7월 1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7월 8일), 해인사 팔만대장경 연구원장 경암 스님(7월 15일),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서봉 스님(7월 22일),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원허 스님(7월 29일), 진해 정암사 주지 상운 스님(8월 5일), 김해 은하사 회주 대성 스님(8월 12일), 금정학원 이사장 화랑 스님(8월 19일),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8월 26일)이 법문을 이어간다. 회향은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9월 2일)이 설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처님 탄생 찬탄한 불자들의 詩

부산불교문인협회, 부처님오신날 시 낭송 법회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차정연)가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감로사 삼천불전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찬탄하는 시 낭송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혜총 대종사, 차정연 부산불교문인협회장, 이석래 (사)부산문인협회 이사장, 박혜숙 사무처장, 채경자 사무국장 등 회원 70여 명과 서병수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 서은숙 전 부산진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혜총 대종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통으로 가득한 사바세계에서 봄처럼 싱그럽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며 “부처님께서는 정법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다. 그리고 여러분 한분 한분은 문학인 시라는 방편으로 부처님의 바른 뜻을 전하는 포교사”라고 격려했다.



차정연 회장은 “우리는 불자 문인으로서 삼보에 귀의하고 수행을 지침으로 삼아 사회의 일원으로 선한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왔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로서의 나를 바라보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부산불교문인협회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시낭송 대회를 20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글 · 그림 실력 뽐낸 밀양 천진불들

밀양 용궁사, 제17회 연꽃문화제 · 시낭송대회

밀양 용궁사(주지 정무)가 6월 3일 용궁사 경내 일원에서 ‘제17회 사명 연꽃 문화제 및 시낭송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시작을 알리는 시낭송과 어린이 요가시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1부 개회사, 인사말, 축사, 심사위원 소개, 심사기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시낭송 발표, 초대 시낭송극, 3부는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용궁사 주지 정무 스님, 손경순 밀양교육장, 김현봉 한국예총 밀양지회장, 김정복 문인협회밀양지부장, 박찬대 포교사단 밀양총괄팀장, 참가자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올해 사명 연꽃 문화제 대상 수상자는 없으며, 최우수상은 그리기 부문 전혜린(예림초3) 양과 글짓기 부문 방나윤(밀양초5) 양이 받았다. 용궁사 주지 정무 스님은 “대중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시낭송을 통해 자긍심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고 대회를 통해 좋은 시를 많이 듣고 마음의 감동과 울림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소년 · 소녀 가장 돕는 자비행

울산불교신도회봉사단, 아이들 위한 생필품 지원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봉사단(회장 이영수)이 5월 31일 신도회 사무실에서 ‘어려운 소년 · 소녀 가정 후원물품 전달식’을 봉행했다.

신도회봉사단은 지역 내 어려운 소외가정 및 청소년을 위해 매년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나눔을 위해 울산에 있는 백양사 및 신도회 회원들이 대거 동참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후원물품은 울산 백양사에서 백미 10kg 62포를 후원했으며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가 마련한 라면 31박스, 기프트카드 10만 원권 31장, 여학생을 위한 위생용품, 화장품 등이다. 지원 가정 청소년은 총 31명이며 울산 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협의회에서 선정했다.

이영수 회장은 “청소년들의 성별을 고려해 다양한 물품을 마련했다”며 “아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전쟁 희생자들 극락왕생 발원합니다”

함안수륙재보존회, 천지명양무차수륙대재 봉행

6월 6일 함안 달전사 수륙도량서
1993년부터 호국영령 위로 수륙재
“함안 지역, 달전사 발전” 기원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도 지속 추진

성낙두 경남지사장

6.25 한국전쟁 희생자와 무주고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법석이 펼쳐졌다.

함안 수륙재 보존회(회장 원명, 달전사 주지)가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들과 유주무주 고혼들을 천도하는 ‘천지명양무차수륙대재’를 봉행했다.

6월 6일 경남 함안 달전사 수륙도량에서 봉행된 ‘천지명양무차수륙대재’는 (사)대한불교불음원이 주최하고 함안수륙재보존회가 주관했다.

매년 보훈의 달 현충일에 봉행되는 무차수륙대재는 타종과 법고의식, 대령, 신중작법, 괘불이운, 도량건립, 법문, 스님 인사, 사자단작법이 봉행됐고 점심공양 후에는 오로단 작법, 소청상위, 소청중위, 소청하위, 상 · 중진공, 하위시곡, 하위수계, 회청 및 장엄염불, 봉송회향 순으로 봉행됐다.

이날 무차수륙대재는 만백 대종사의 증명으로 〈수륙무차평등재의 촬요(결수문)〉와 〈천지 명양수륙재의찬요(중례문)〉 등의 의례문에 준해 함안수륙재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봉행됐다.

함안수륙재보존회장 원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함안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19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치열한 백병전이 반복되면서 아군과 적군의 희생이 많았던 동족상잔의 뼈아픈 현장을 품고 있다”며 “순국선열, 호국영령, UN 참전용사, 민간인 희생자는 물론 적군과 무주 고혼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원혼의 몸을 벗어나 남북통일과 국태민안을 위한 구국의 수호신이 되어 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함안수륙재보존회는 6월 6일 함안 달전사 수륙도량에서 ‘천지명양무차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어 “함안수륙재보존회는 수륙재를 통해 영남지역의 전통적 불교의례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문화적 가치 창달에도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종합 불교예술인 천지명양무차수륙대재의 예술적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고 보존 · 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만백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불교에서는 전생과 금생, 내생을 인과응보를 바탕으로 인하여 윤회한다”며 “불교의 전통의식과 절차에 따라 봉행하는 스님들이 모든 영가들을 위로해서 부처님 진리에 따라 극락세계에 갈수 있도록 기원해 주기 바란다”고 설했다.

대종사는 이어 “달전사에서 봉행하는 무차수륙대재는 함안수륙재 보존회에서 전통의식에 의해 집전하니 시방세계의 유주무주 고혼들이 반드시 이고득락할 것”이라며 “이번 무차수륙대재로 인해 우리의 소망인 남북통일과 국태민안이 이뤄지고 함안지역의 발전과 달전사 도량이 중생제도의 수행도량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수륙재보존회는 지난 1993년부터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6.25격전함안민안비’에서 수륙재를 봉행해 왔고 2007년부터는 달전사에서 영남지역의 전통불교의례를 보존하고 전승해 왔다. 현재 함안수륙재보존회는 지속적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금산사 ‘A to Z’, 체험으로 만나다

‘마음 쉬는 토요일’ 진행
미륵전 공포조립체험 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양’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는 전통산사 문화재활용프로그램인 ‘마음 쉬는 토요일’ 체험행사를 개최했다.〈사진〉

6월 3일과 4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김제시가 주최하고 금산사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금산사의 국보 미륵전을 중심으로 마련된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금산사 보물찾기, 한지부채 컬러링, 미륵전 판화체험, 미륵전 공포조립체험, 오유지족 다식다도체험, 도자 펜던트 만들기, 보리의 약속 애니메이션 상영, 한지등 만들기, 모악산 사진관, 룰렛게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산사의 전통문화재들이 대중들의 인식속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문화재들의 역사성과 고유한 가치가 현대적인 언어로 재인식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책무를 다하고자 기획됐다.

참가자 김정주(62, 대전) 씨는 “아이들 뿐만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며 “국보 미륵전에 대해 건축, 미술, 영상,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재밌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정형화된 문화해설이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다양한 체험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주말이면 금산사를 찾아 바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마음의 평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사생대회 시상식



세종 전통문화체험관(관장 원묵)은 6월 6일 관내 다목적실에서 제1회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어린이날 기념 사생대회 ‘한옥의 봄향기’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시상식에는 사생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와 학부모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은 관장 원묵 스님을 대신해 보의 스님이 진행했다.

이번 사생대회는 총 7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외부 전문가와 내부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 연세초등학교 김탄탄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상장과 30만원의 상금을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어린이 총 1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장 원묵 스님은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어린이 여러분의 열정과 재능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내년에는 이번 행사보다 더욱 다양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크고 다양한 행사를 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밀양 보문사 산신각 낙성 · 산신탱화 점안법회

6월 4일 동진 스님 증명법사로

밀양 보문사(주지 용경)는 6월 4일 산신각 낙성법회와 산신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불교 전통의식으로 봉행된 점안의식은 미타암 동진 스님을 증명법사로 무봉사 천주 스님, 극락암 효진 스님, 지우 스님, 유담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김진량 통도요 대표를 비롯한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산신탱화 점안법회는 그동안 산신각 건립과 산신탱화 조성에 공로가 큰 김영자, 김미화, 정경숙 불자 등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

밀양 보문사 주지 용경 스님은 그간 보문사의 연혁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 2020년 산신각 불사를 시작했으나 3년여가 지나서야 낙성을 하게 됐다”면서 “불사에 동참하신 불자들 덕분에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밀양 미타암 동진 스님은 “불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과연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으나 주지스님과 불자들의 공덕으로 불사를 회향할 수 있었다”며 “임적하신 창건주 신행 스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성된 산신탱화는 보문사 주지 용경 스님의 발원으로 제작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성 옥천사 · 고성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체결

학생 · 교직원 등 템플스테이 운영

경남 고성 옥천사가 고성 지역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와 경남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숙)은 6월 7일 경내 자방루에서 고성군 관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 산공 스님, 이미숙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도상 교육지원과 과장, 고정숙 행정지원과 과장, 학교통합지원 담당 오정훈 장학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이 참석했다.

마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업무협약으로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마음의 평온을 찾고 학생들에게 우리의 애국관과 호국관을 심어주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 옥천사와 경남 고성교육지원청은 6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미숙 교육장도 인사말을 통해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 고성의 교육지원청 관내 교직원들도 심신의 안정을 찾고 학생들도 명상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중심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연화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고 옥천사 명상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마가 스님은 고성교육지원청의 템플스테이 참가비용은 옥천사에서 활동하신 독립유공자 스님들의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상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나를 위한 행복여행’ 2023년 교직원 성장 프로그램으로 7월 7일과 13일 두 차례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교직원 중 학교폭력 담당교사 및 교무행정팀 직원들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금강사, 김해 사충신 의병 추모 위령재

임진왜란 당시 김해성서
전사한 의병장 4명 추모

김해 금강사(회주 법장)가 ‘김해 사충신 의병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

김해 금강사에서 5월 30일 입재해 6월 4일 회향된 ‘김해 사충신 의병 추모 위령재’는 사충신선양회(회장 법장. 금강사 회주)와 (사)행복1% 나눔재단(회장 조유식)이 주최했다.〈사진〉



김해성 사충신 추모 위령재는 임진왜란 당시 김해성을 포위하고 조총으로 공격한 왜군에 맞서 김해성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송빈, 김덕기, 이대형, 류식 등 4명의 김해성 의병장과 이름없는 의병 1000여 명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해 사충신선양회장 법장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조선시대 김해성을 지킨 의병들은 진정한 호국의 영웅들”이라며 “이들의 희생정신으로 이 나라의 국운이 번영하였기에 이를 영원히 기억하고자 위령재를 올린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려末 고승 나옹왕사 면면 ‘조명’

현담 스님, ‘나옹왕사와 영덕 불교’ 출간

영덕 출신의 고려 말기 고승 나옹왕사의 행장과 영덕 지역 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총망라해 한 권으로 묶은 〈나옹왕사와 영덕 불교〉가 출간됐다.

영덕불교사암연합회장, 영덕불교문화발전연구원장 등 소임을 맡아 영덕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서남사 주지 현담 스님(철학박사)이 펴낸 〈나옹왕사와 영덕 불교〉는 1부에서 역사 속 영덕 불교와 영덕군에 산재한 폐사지를 두루 답사한 현장 기록을 상세하게 담아 영덕 불교의 과거를 재조명했다. 책에서 현재 영덕군청이 조선시대 흥덕사 절터임을 밝혀 영덕이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음을 드러내 주목받고 있다.

2부에서는 나옹왕사의 초출삼계(超出三界) 이익중생(利益衆生) 원력행을 담았다. 나옹왕사의 행장기와 함께 영덕에 있는 스님의 생가터와 탄생 설화지, 스님의 사적비가 세워진 반송정 등을 비롯한 주요 인연처를 자세히 소개하고, 왕사가 머물면서 정진한 전국의 주요 사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2020년 영덕 대표 사찰 장육사 인근에 개관한 나옹왕사 기념관에 대한 화보도 곁들여 나옹왕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책 곳곳에서 그림과 글씨에도 뛰어났던 나옹왕사의 주옥같은 게송을 만나는 것은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3부에서는 현재 주재하고 있는 70여 곳이 넘는 영덕의 사찰을 지역별로 나누어 사찰 현황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영덕 불교의 현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역사 기록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현담 스님은 그동안 영덕 불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면서 나옹왕사의 현창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책 발간과 함께 주도적으로 행사를 이끌어왔다. 현담 스님은 영덕 불교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영덕읍 내에 나옹문학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철완 대구경북지사장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불교 지옥 '화제'

〈VR〉

쿠스미 스님, 3년간 구상 끝에 개발
불교 가르침, 엔터테인먼트와 융합
죄업 따른 사후 세계 경전 근거 설명
고글착용 후 체험…염라대왕 만나기도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의 지옥에 대해 설명하는 켄쇼 스님.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죽고 나서 생전의 악업에 대한 벌을 받는 지옥. 이 지옥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화제다. 일본 요코하마시 토츠카구에 소재한 일련종 사찰인 묘호지(妙法寺). 이곳에서는 가상현실을 이용해 불교의 사후세계와 연결된 '지옥체험회'가 열려 화제다. 6월 2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가상현실로 바라보는 불교의 지옥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4월부터 월 1회 이상 묘호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옥체험회'에는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지옥을 구상한 묘호지의 주지 쿠스미 켄쇼 스님은 구상부터 개발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엔터테인먼트와 융합시키면서 소개하고 싶어 가상현실을 만들었다"고 개발의의를 설명했다.

지옥체험회는 먼저 법당에 모인 참가자들에게 스님이 대형모니터를 이용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묘호지 측은 "1회에 15인을 정원으로 참가자를 받고 있다. 보통 정원을 가득 채워 한 번도 미달된 적이 없다"며 대중들의 뜨거운 반응을 전했다. 스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8대 지옥을 설명하고 현세에서 지은 죄업에 따라 어느 지옥에 가는지를 경전에서 말한 내용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가장 죄가 가벼운 사람이 떨어지는 '등활지옥'만 해도 죄인은 약 1조6653억 1250만년, 죄가 가장 무거운 '무간지옥'은 349경 2413조 4400억년 동안 지옥의 나찰들에게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같이 지옥의 개요에 대한 약 10분간의 해설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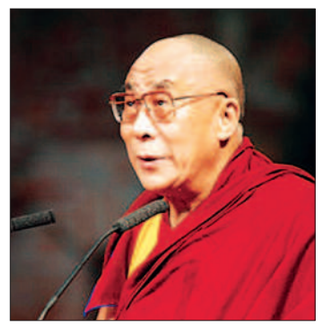
해설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수의에서 모티프를 딴 가상현실 고글을 착용하고서 사후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첫장면은 저승의 경계인 삼도천(三途川)을 배로 건너는 모습이다. 이때 참가자는 목을 움직여 주위를 360도로 바라볼 수 있다. 음성으로는 함께 강을 건너는 영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건네며 현장감을 자아낸다.

강을 건너면 화면 가득히 염라대왕이 등장한다. 참가자의 앞에 있던 영가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비추고서, 염라대왕은 참가자의 눈앞에 나타나 "다음은 그대다. 그대는 어떻게 일생을 살았는가?"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 순간 옆에서 지장보살이 나타나 앞으로 가게 될 세계들을 안내한다. 지장보살은 수라, 축생, 아귀도의 순으로 참가자들을 안내하며 각 세계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며 담담하게 설명한다. 마지막 지옥도에서는 지옥의 나찰들이 죄인들에게 가시나 창칼로 고통을 주는 광경이 펼쳐진다. 지장보살은 지옥도에서 "삼독심에 마음이 지배된 과보가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고서 다시 염라대왕이 나타나 "그대는 어떻게 살았는가?"하고 묻는 것으로 가상현실 지옥체험이 끝난다.

지옥체험을 경험한 한 참가자는 "현실적인 체험으로, 자신의 평소의 삶을 다시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후기를 남겼다. 또 다른 참가자는 "염라대왕의 '그대는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질문에 울림이 있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경험이었다"고 감상을 남겼다. 켄쇼 스님은 "우리의 마음속엔 부처도 있고 지옥도 있다. 어느 것을 택하는지는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현실 지옥체험은 묘호지에서만 진행중이며 향후 타 사찰에서의 시범을 비롯, 다양한 불교 이벤트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달라이 라마, 인도 열차 참사에 애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지원금 기부도



288명(7일 기준)이 사망한 인도 열차 충돌 사고에 대해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사진〉가 애도를 표했다.

6월 5일(현지시간) B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지난 6월 3일 인도 동부 오디샤주(州)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전날 오디샤주 발라소레(Balasore)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에 대해 "부상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달라이 라마는 "나는 과거 오디샤주를 여러 번 방문했고, 오디샤주 주민들을 만난 것은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며 "주정부와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들이 이 비극적인 사고를 수습하고 희생자와 부상자 등에게 치료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들의 발전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인도에 설립된 달라이라마 신탁(The Dalai Lama Trust)이 이번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지원금을 기부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앞서 지난 2일 오디샤주에서는 '21세기 인도 최악의 참사'라고 불린 3중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달리던 한 여객열차가 주차돼있던 화물열차에 부딪히면서 탈선했다. 이후 같은 시간 다른 선로에서 이동하던 또 다른 여객열차와도 충돌하면서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288명이다. 이 가운에 시신 205구의 신원은 확인됐지만, 나머지 83구의 신원은 아직 미확인 상태다. 부상자수는 11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인도에서는 구식 신호장비와 노후한 차량, 안전관리 부실로 열차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1981년엔 비하르주에서 다리를 건너던 열차가 탈선해 강물로 떨어지면서 800명 이상이 숨졌고, 1995년에는 뉴델리 인근에서 358명이 숨진 인도 사상 최악의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日 신장상, 500여 년 만에 '환지본처'

474년 전 조성…고미술 경매서 발견
지역 고미술상 인수…진고지에 반환

일본 큐슈섬의 동북부였던 분고(豊後) 지역에서 조성되어 어느샌가 유출되었던 신장상이 인터넷 고미술 경매를 계기로 본래 봉안됐던 지역을 귀향했다. 6월 2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우여곡절 끝에 귀향한 신장상에 대해 보도했다.

현대의 오이타현에 해당하는 과거 분고 지역에 복수로 존재했다고 전하는 진고지(神護寺). 현재는 단 1개소만이 그 사명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하순 오이타(大分)시에 소재한 진고지 측에 타 현의 미술계 인사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는 진고지의 것으로 보이는 신장상이 인터넷 옥션에 출품되어 있다는 것. 사찰측은 제보를 받은 즉시 확인에 나섰다.

진고지의 주지 호쥬 노리타카 스님은 "신장상의 좌대 뒷면을 촬영한 사진 속에 '분고 오나와군 다카다무라 진고지'라는 묵서가 있었다. 다카다무라는 현재 사찰이 소재한 인근지역의 옛 이름"이라며 신장상이 사찰과 인연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회상했다.

출품된 신장상은 약사여래불을 협시하는 12신장 중 하나인 '미기라대장(迷企羅大將)'. 좌대를 포함하여 높이 81cm, 무게 5kg의 목재입상으로 몸 전체에 옻칠이 올라가 있어 큰 훼손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일부 붉은색으로 채색한 흔적도 남아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먹으로 추정되는 안료가 칠해져 흑색으로 보인다. 특히 눈에는 옥안(玉眼)이라 불리는 수정제 눈동자가 상감되어 있어 더욱 생생한 상호를 표현하고 있다.

신장상의 좌대 안쪽에 사찰의 이름과 함께 1549년 9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먹으로 쓰여 있어 조성시기도 가늠할 수 있다. 진고지 측은 "본 사찰은 1527년에 창건된 것으로 전한다. 신장상의 묵서가 정확하다면 이 상은 사찰이 창건되고 나서 조성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경매에서 신장상은 히로시마에 소재한 고미술 전문 회사에 낙찰됐으나 주지스님의 연락과 설득 끝에 진고지 측에서 재구입하여 반환이 결정됐다. 회사 측은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예경의 대상인 신장상이 원래 봉안돼있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반환의 계기를 밝혔다.


돌아온 신장상을 설명하는 호쥬 스님. 사진출처=오이타 신문

한편 현재 진고지의 본존은 아미타여래로 약사여래와는 관계가 없고, 사찰에 남은 자료에서도 12신장이나 약사여래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또 묵서에 쓰인 오나와군의 경우 현재 사찰 소재지의 인근지역명이나 해당 지역에는 다른 진고지라는 사찰이 현존하지 않는다. 호쥬 스님은 "과거 분고 지역에 진고지라는 사찰이 복수로 있었다고 생각한다. 현존하는 이 진고지와 이 신장상이 직접적인 인연이 없을지라도, 본래 봉안됐던 지역에서 해당 사찰명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을 대표해 불상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며 불상을 환수한 의의를 전했다. 시의 문화재위원회 역시 "과거 시내에 또다른 진고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신장상이 현존하는 진고지의 것이었는지도 불명"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호쥬 스님은"메이지 시대에는 불교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당시 많은 불상과 사찰이 파괴되었다. 이 신장상 역시 그런 광풍에 휩쓸린 것 아닌가 추정된다"면서 "그러나 여러 어려움을 이기고 돌아온 신장상의 모습을 지역민 모두가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신장상은 보호케이스에 안치, 진고지 본당에서 대중에게 공개 중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얀마 승가위원장 '바머 사야도' 입적

6월 4~6일 국가추모의식 봉행



미얀마 국가승가마하나야카위원장 바머 사야도(Bhamo Sayadaw)가 5월 25일 세랍 94세, 법랍 74세로 만달레이에 있는 바머 수도원에서 열반에 들었다. 미얀마 종교성은 이에 따라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만달레이 공항에 특설식장을 설치하고 국가 추모의식을 봉행했다. 약 20만 명의 불자들이 모여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6월 6일 보도된 디지털 저널 기사에 따르면 크와 흘렝(Kyaw Hlaing) 종교성 사무국장은 "바머 사야도의 제자들과 승가중앙실무위원회 사야도, 지역승가나야카위원회 사야도들이 협력하여 마지막 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바머 사야도는 만달레이 지역의 야베 마을에서 태어나 1942년 6월 29일 사미계에 서품되었고, 1949년 2월 7일 비구계를 받고 스님이 됐다. 2010년 7월부터 우리로 치면 종정에 해당되는 미얀마 국가 승가마하나야카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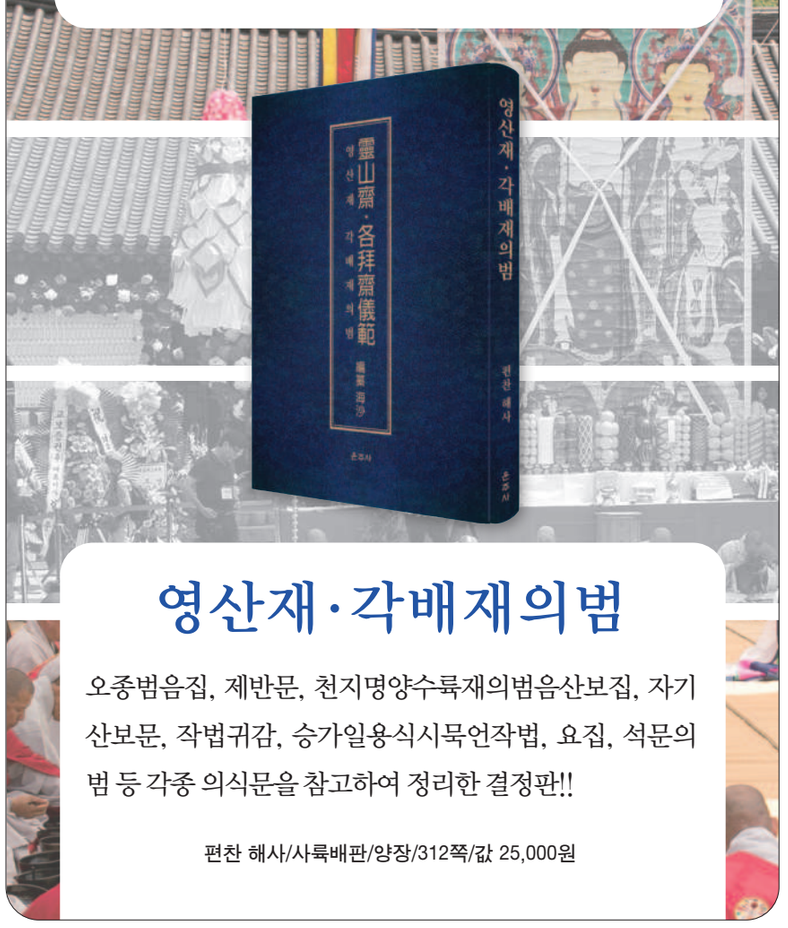
바머 사야도는 파리야티 사사나 대학 관리 중앙위원회, 양곤대학 등에서 다양한 명예 학위를 받기도 했다. 또 후학 양성에 앞장서 사야도 제자들은 미얀마 삼장 코비다(Tipitaka-Kovidha) 시험에 대거 합격했다. 이 승려 시험은 1948년 이후 미얀마에서 매년 열리는 최고 수준의 승려 시험이다.

디지털 저널은 와키 유물박물관 원장인 테오 추 관(Teo Choo Guan) 박사의 추모 메시지도 함께 소개했다. 테오 추 관 박사는 바머 사야도의 지도 아래 단기 승려과정을 성료한 바 있다. 테오 박사는 "사야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때 아버지를 만난 듯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일이었다. 그 덕분에 삶이 밝아지고 수행을 심화하고 연민과 지혜를 계발하도록 영감을 받았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불광산사 성운대사 입적 후 첫 번째 책!
다시 태어나도 원화한 인생을 열다
빈곤하게 태어나 평생 정규교육을 못 받았으나 스스로 배우며 인생을 개척해 온 성운대사가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지를 인생 여정과 함께 들려준다.
성운대사 지음, 이승준 옮김/사륙배판/208쪽/값 16,000원

열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Nibbāna in Theravāda Perspective
상좌부불교에서 본 열반
이론 연구만으로 열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한다. 열반에 대한 근본적, 체계적, 실천적 이해를 도모, 제시하였다.
담마삐야 사야도 지음, 정준영·차은숙 옮김/신국판/288쪽/값 18,000원

천도재와 49재 여법하게 지내기!


영산재·각배재의범
오종범음집, 제반문,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자기산보문, 작법귀감,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 요집, 석문의범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결정판!!
편찬 해사/사륙배판/양장/312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한다

조계총림 방장
현봉 근일 대종사



마조(馬祖)가 오랫동안 좌선을 하고 있으니, 어느 날 회양선사가 마조 앞에서 벽돌을 갈고 있었다. 마조가 묻기를 "벽돌을 갈아(磨塼) 무엇하시렵니까?"하니, 선사가 말하기를 "이걸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하였다.

마조가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하니, 회양선사가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지 못하는데, 어찌 좌선하여 부처가 되겠는가?"하였다.

마조가 묻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하니, 선사가 말하기를 "비유하면 수레에 소를 메워 끌어갈 때, 만약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리는 것이 곧 옳은가? 아니면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하였다.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릴 것이 아니라 소를 때려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이 '이야기의 참 뜻' 즉 화두(話頭)는 무엇인지는 각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송광사 조계총림을 개설하신 구산대선사께서는 보조국사께서 자호를 목우자(牧牛子)라고 하셨듯이, 자호(自號)를 타우자(打牛子)라고 하셨습니다. 타우자는 '소를 때리는 사람' 또는 '소를 치는 사람' 이란 뜻이니, 그냥 줄여서 '소친애' 라고도 쓰셨습니다.

〈중략〉

남악회양선사에게 누가 묻기를 "거울이 형상을 만드는데〈如鏡鑄像〉 형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울의 밝음은 어느 곳으로 향해 갑니까?"하니, 선사는 말하기를 "대덕이 어린 동자였을 때의 그 상모(相貌)는 어디에 있는가? 그와 같다"하였다.

다시 묻기를 "그렇게 형상이 이루어진 뒤에는 어째서 비추지 못합니까.〈只如成像後 爲什麼不鑑照〉"하니, 회양선사는 말하기를 "비록 그렇게 비추지는 못하지만, 그를 한 점도 속이지 않느니라.〈雖然不鑑照 謾他一點不得〉"하였다. 거기에 저는 다르게 말합니다.

安居掩門坐 空庭也蕭灑
霞彩紅天海 雲卷碧山野

안거하며 문을 닫고 앉아 있으니 빈 뜰은 깨끗하고 산뜻하구나. 노을빛에 하늘과 바다는 붉어지고 구름이 걷히면 산과 들이 푸르네.

行住坐臥가 수행이로다!

〈행주좌와〉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學道之人不識眞(학도지인불식진)하고
只爲從來認識神(지위종래인식신)이로다.
無始劫來生死本(무시겁래생사본)이어늘
癡人喚作本來身(치인환작본래신)이로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참됨을 알지 못하고 다만 본래의 알음알이를 잘못 알기 때문이다. 끝없는 옛적부터 생사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본래의 몸이라 하도다.

오늘 하안거를 결재하는 제방의 선원 대중이여! 여름 석 달을 산문 출입을 삼가며 힘써 정진하게 되었도다! 오직 화두타파의 일념으로 한여름의 더위가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지도록 정진하여 불조와 시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리라.

결계(結界)가 원만했고 대중이 화합하며, 단월의 후원이 지극하니 수행의 인(因)이 원만하도다.

금년 결재의 인연으로 일체무명이 소멸하고 본성이 확연히 드러나 본분사를 마친 대자유인이 되어야 하리라.

칙천(則川)화상이 어느 날 차(茶)를 따는데 방거사가 묻기를 "법계가 몸을 용납하지 않거늘 스님은 내가 보이십니까?" 하니 선사가 말하기를 "노승이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방공에게 대꾸를 했겠소."하였다.

거사가 다시 말하기를 "물으면 대답하는 일은 예사로운 일입니다." 하니 선사가 아는 체하지 않았다. 거사가 다시 말하기를 "아까 경솔하게 물은 일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선사가 역시 아는 체하지 않으니, 거사가 할을 하고는 "이 무례한 사람아! 내가 낱낱이 기억했다가 눈 밝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리라." 하니, 선사가 차 바구니를 들고 돌아가 버렸다.

心地隨時說(심지수시설)하고
菩提亦祈寧(보리역지녕)이라
事理俱無礙(사리구무애)하니
當生卽不生(당생즉불생)이로다.

마음자리를 수시로 말했고
보리 또한 그럴 뿐이네
사와 이에 모두 걸림이 없으면
나는 자리가 곧 나지 않는 자리일세.

계묘년 하안거는 6월 3일 전국 100여 선원에서 약 2000명의 수좌가 방부를 들이고 용맹 정진에 나섰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정예하를 비롯해 각 총림 방장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법어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어찌하여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십세고금수시친(十世古今誰是親)이냐.
담연일물최위진(湛然一物最爲眞)이라.
엽화개락근유일(葉花開落根唯一)이요.
일월거래절왕환(日月去來絶往還)이로다.
십세 고금에 누가 가장 친한인가.
맑고 고요한 한 물건이 가장 참되도다.
꽃피고 잎 지나 그 뿌리는 하나요.
해가 뜨고 달이 져도 가고 옴이 없구나.

대주 혜해스님은 건주 복건성 사람으로 성(姓)은 주(朱)씨이며 월주 절강성(大雲寺 道智和尙)에게 출가득도 하였다. 그 후 스님은 강서에 있는 마조스님을 찾아가 뵈오니 마조스님이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여기 와서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 집의 보배창고는 살피지 아니하고 집을 떠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나에게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떤 불법을 구하려 하는가?"

그러자 혜해스님이 절을 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혜해자신의 보배 창고입니까?"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 물을 줄 아는 그 놈이 너의 보배 창고이다. 일체가 구족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사용이 자재한데 어찌하여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이 말 끝에 혜해스님은 크게 깨쳐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지적인 이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뛸 듯이 기뻐서 절을 올려 감사를 드리고 6년 동안 마조스님을 시봉하였습니다.

대주 혜해스님은 깨닫고 나서 돈오입도요문론을 직접 쓰시고 마조스님이 그 논을 읽고 인가하신 중요한 책입니다.

돈오입도요문론(頓悟入道要門論)에

인욕제일도(忍辱第一道)다.
선수제아인(先須除我人)하라.
사래무소수(事來無所受)하면
즉진보리신(卽眞菩提身)이로다.
참는 것이 제일가는 도다.
먼저 나다 너다 하는 것을 벗어나서
일이 와도 받는 바가 없으면
곧 보리의 몸. 부처이니라.

묘도(妙道)는 당당(堂堂)하여 취부득(取不得) 사부득(捨不得)하니.
불가득중(不可得中)에 지마득(只麼得)이로다.
묘도는 당당하여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음이라. 얻을 것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얻음이로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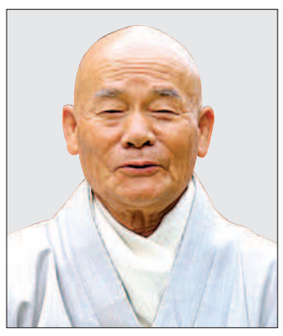
하안거 결제가 되었습니다.

해인총림은 정진하기가 좋은 도량입니다. 옛날 스님들은 대중 처소는 대중이 절반 공부를 시켜준다 하시고 정진 분위기를 중요시 했습니다. 정진 분위기를 흩트리는 것을 아주 경계했습니다. 이번 하안거 결제기간 애써 정진해서 우리 모두 공부를 성취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합시다.

거불횡추(車不橫推)요.
이무곡단(理無曲斷)이로다.
수레를 횡으로 밀면 굴러 가게 할 수 없고 이치는 왜곡된 말로는 밝힐 수 없느니라.

소 찾는 사람아 소 타고 소 찾나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맑은 바람 자유로워 한가하기만 하다. 일은 이 일뿐인데 여름안거가 기다리고 있었네.
願我世世生生處(원아세세생생처)
常於般若不退轉(상어반야불퇴전)
언제 어디서나 이~뭘까 한복판에서 살겠습니다. 나를 바로 보려면 이~뭘까에 와 있어라.

활활 타서 재가 되어 철저하게 지워진 이~뭘까에 와 있어라. 한 물건도 붙을 수 없는, 어떤 조건도 붙을 수 없는 큰 사랑 영(0)의 이~뭘까에 와 있어라.

언제나 정월 초하루 새 출발, 언제나 시작이다. 눈뜨면 이 일 뿐인데 아, 百事(백사)를 접고 都放下(도방하)하고 결제에 입방을 했네. 慶幸之心(경행지심)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보았으나 이름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 없다. 얻었으되 헤아릴 수가 없다. 삼라만상이 用(용)이요, 태허공이 體(체)로다. 이르는 곳마다 신선이요, 일체에 응하니 감추어진 寶藏(보장) 속에 인연 따라 응화하네. 눈 떴다 감았다 괴이 여기지 마라. 이별한 뒤에는 보기도 드무네."

–만공스님 법문–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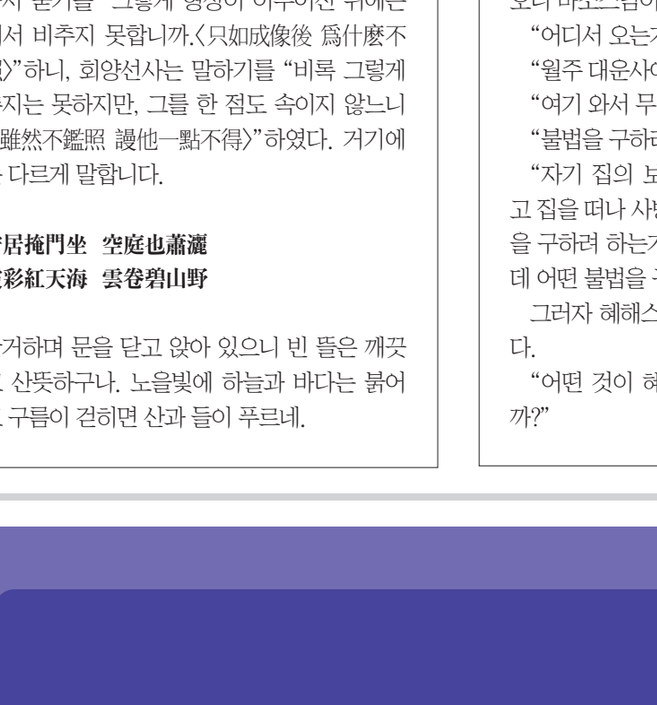
誰知王舍一輪月(수지왕사일륜월)
萬古光明長不滅(만고광명장불멸)
누가 알겠는가, 그 시절 왕사성의 이 달덩어리를. 만고광명이여, 길이 그칠 줄 모르네.

雖設雲山千萬事(수설운산천만사)
海天明月本無事(해천명월본무사)
구름 산 천만사 일도 많은데 바다 하늘 밝은 달 본래 말이 없구나.

아, 밝은 달이여!

可笑尋牛子(가소심우자)
騎牛更覓牛(기우갱멱우)
우습다. 소 찾는 사람아, 소타고 소를 찾나?

이~뭘까?
점점 뚜렷해지는 이 일 뿐이네.



잘난 척 불교 사자성어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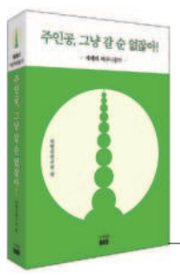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세계 비구니 승가 면면을 살피다



주인공, 그냥 갈 수 없잖아! – 세계의 비구니 승가
대행선연구원 펴냄
도서출판 동승동/비매품



지난해 6월 17~1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대행선연구원 주최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 사진〉

대행선硏 〈세계의 비구니 승가〉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맞아 열린
국제학술대회 논문들 보완해 엮어
티베트, 대만 등 비구니 현황 살펴
남방 비구니 계맥 부흥 노력 '눈길'
진우 스님 "비구니 전법 활성화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티베트, 스리랑카, 태국 등 세계 각국의 비구니 승가 현황과 면면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연구서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재)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주인공, 그냥 갈 순 없잖아! -세계의 비구니승가〉(이하 세계의 비구니 승가)를 간행 ·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대행선연구원이 지난해 묘공당 대행 선사 원적 10주기를 기리며 세계의 석학과 수행자들을 초청해 6월 17~18일 '세계의 비구니승가: 현재와 미래(Buddhist Nuns Sangha around the World: Present and Future)'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 · 논의된 내용을 1년 동안 보완하고 재편집하여 이번에 단행본으로 엮어낸 것이다. 당시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태국, 미국, 티베트 등 세계 각국의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활동상을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비구니공동체 활동 현황 조명"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천사에서 "비구니스님들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해 나가고 어떠한 전법교화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국의 전문가와 수행자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위해 불교와 대중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비구니스님들의 전법교화와 수행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원했다.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간행사에서 "지난 학술대회를 통해 얻은 성과는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 각 지역의 비구니승가공동체가 어떤 수행과 포교를 하고 있으며 어떤 현실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면서, "발표 논문을 일반인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형태의 글로 재편집하여 이번에 〈주인공, 그냥 갈 순 없잖아! - 세계의 비구니승가〉를 간행하였다"고 밝혔다.

책 제목은 "부처님 법에 의해서 한마음이고 한 도량이고 한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는 없다"고 한 대행 선사의 어록 중 일부이다. 이에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저잣거리에 살든 고요한 자연 속에 살든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면서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차피 한번 살아가야 하는 인생길이라면, 보다 올바르고 참인 간다운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세세생생 대자유인의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구니 승가 진전과 한계 확인 의미

승단의 일원인 비구니의 역할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상응하여 비구니스님들의 지위와 활동에는 여전히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간행위원회가 밝힌 대로, 이 책에 실린 13편의 연구논문에서도 세계의 비구니승가가 이뤄낸 의미 있는 진전과 더불어, 이들이 직면한 제도적 · 사회적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한국, 대만, 일본 등 대승불교 국가의 비구니승가는 수행자이자 포교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으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비구니승가는 중국 역사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공헌을 이뤘다.

하지만 미얀마, 태국, 베트남, 티베트 등의 국가는 비구니계맥이 끊어진 채로 불교가 전래됐고, 현재 현재는 비구니계맥 복원 운동이 진행중이다. 인도히말라야 · 티베트불교 전통의 비구니승가 또한 달라이라마 성하의 독려 속에 비구니계맥 복원과 관련하여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비구니, 여성승려, 여성성직자, 여성출가자, 수계 여성 등의 표현들이 혼합돼 있다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이는 각국의 비구니승가(승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번역한 것으로, 수계 여부나 신분 혹은 종교적 지위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각국의 사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을 통해서도 세계 비구니승가의 위상이나 당면 과제들을 공감할 수 있다.

세계 각국 비구니 승가 발전 방향은

〈세계의 비구니 승가〉는 한국, 동아시아, 남방, 서구 비구니승가의 4부로 구성됐다. 1부 '한국 비구니승가'는 우리나라 비구니승가의 역사와 현황, 당면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세 편의 글을 실었다. 생활참선 수행도량인 한마음선원의 포교 활동과 미래 포교 방향, 전국비구니회에서 비구니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한국 비구니승가의 현황과 개선 방안, 그리고 한국불교사에서 비구니승가의 변천과정과 현재 비구니스님들의 활동 양태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글이다.

2부 '동아시아 비구니승가'는 대만, 일본, 베트남의 비구니승단을 국가별로 소개한 네 편의 글을 실었다.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대만의 비구니승단, 성직자의 결혼이라는 특징을 지닌 일본불교에서 여성성직자의 활동과 인식, 그리고 최근 불교가 부흥하는 베트남의 현실적 고민과 기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3부 '남방 비구니승가'는 인도 히말라야 · 티베트와 스리랑카, 태국과 미얀마의 비구니승가를 소개한 네 편의 글을 실었다. 정치적 ·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각국의 비구니승가의 계맥 복원 노력과 그들의 활동 상황,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여 어떠한 일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알 수 있다.

4부 '서구 비구니승가'는 서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출가자들이 티베트와 한국에서 불교를 배워 현지에 어떻게 활용하고 포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생하게 보여주는 두 편의 글을 실었다. 인도 히말라야 · 티베트불교 전통을 지키는 미국 쉬라바스티 애비, 한국 선불교 전통을 기반으로 한 선련사에서 출발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북미 불교교단인 자혜불교회는 출가와 재가, 남녀의 구별을 떠나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이 책에 실린 글 중 일부는 대행선연구원에서 발행한 〈한마음연구〉 제9집과 제10집에 논문 형태로 게재됐다.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학술자료실-논문검색)에서 해당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인공, 그냥 갈 수 없잖아! - 세계의 비구니 승가〉는 비매품으로 1000부를 인쇄해 전국비구니회에 500부가 기증된다. 500부는 6월 17일 열리는 대행선연구원 제7회 학술대회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031)470-3277

행복으로 나가는 마음새김 이야기



서른부터 다가온 반야심경의 행복
정찬주 지음 / 정윤경 그림
㈜다연 / 1만 8500원

오랜기간, 불교적 사유가 배어있는 명상적 산문과 소설을 발표해온 정찬주 작가의 신작 〈서른부터 다가온 반야심경의 행복〉을 읽다보면 마치 저자의 일기장을 꺼내보는 느낌이 든다. 원고가 일기장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반야심경〉을 학문적으로 해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른부터 다가온 반야심경의 행복〉 속 문장이나 단어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혹은 오래된 기억 속에서 자유분방한 시어처럼 곳곳에 들어 있다. 때문에 저자는 저서를 〈반야심경〉의 해설서가 아니라 에세이라고 설명한다.

1부 '서른부터 다가온 반야심경의 행복'은 26개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원고를 시처럼 행을 나눈 것이 특징이다. 저자는 본인이 경험한 〈반야심경〉의 오의(奧義)나 영감을 독자에게 감성적으로 전해주고자 일부러 행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2부 '행복한 마음새김 이야기'는 15개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졌다. 1부의 바탕이 되는 저자의 경험이나 지식을 징검다리 삼아 쓴 고백적인 산문들이다. 그렇기에 2부의 일부 내용은 1부에서 시처럼 함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비록 1부와 2부가 형식은 다른 것 같지만 내용면에서는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정찬주 작가는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책 속의 밑줄 긋기

해탈꽃을 피우지 못하는 '어제의 나'로 살아서야 내 삶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타성에 젖은 삶은 '어쩔 수 없는 생존'이지 새순처럼 올라오는 '거듭 나는 삶'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16p

자신의 원력대로 태어나 주어진 인생을 주인공으로 산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러나 깨닫지 못한 우리는 아직도 지은 업에 따라 윤회하고 있다. 업대로 이리 저리 끌려 다니는 삶이 즐거울 수는 없다. 괴로운 일이다.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고해를 건넌다고 했겠는가. 땅위를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파도치는 물위를 건너가는 셈이니 말이다. 195~196p

60만 독자의 가슴을 울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후
40년 만의 베스트셀러!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같은 맛,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스님의 글맛!

1980년대 법정 스님, 오현 스님과 함께 『사랑하며 용서하며』로
필명을 드날렸던 향봉 스님이 우리 앞에 다시금 '산골 노승의 글쓰기'를 내놓았다.
유쾌하게 이어지는 문장을 따라가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다가도
어느새 가슴이 먹먹하고 절절해진다.
'눈물방울 두어 방울' 적시지 않고는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다.
스님이 겪어온 삶의 역정과 치열한 구도기 속에서
진리와 한몸이 되어 살아가는 '자유인의 삶'이 드러난다.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자유로운 삶
향봉 지음 | 248쪽 | 17,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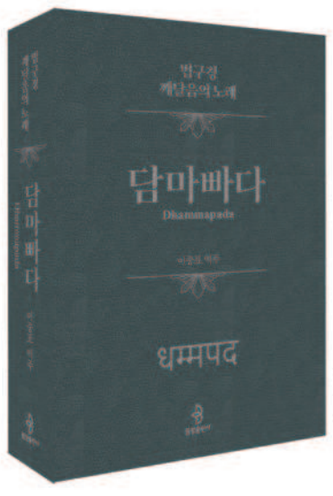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석학 이중표 교수의 첫 완역 책!
《담마빠다(Dhammapada, 법구경)》!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읽은 불교의 고전(古典)
《담마빠다》 빠알리어 원전을 고스란히 옮기다
우리말 담마빠다의 새로운 표준!

딱 한 권 불경을 읽어야 한다면
《담마빠다》를 읽어라!
가장 바른 《담마빠다》를
읽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담마빠다》는 8음절로 이루어진
운문 형식이기 때문에 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어 단어를 배치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존의 번역에는 종종
의미가 모호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
역자는 이 번역에서 원전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고 명쾌한 의미를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_머리말 중에서

법구경 깨달음의 노래



담마빠다
Dhammapada

이중표 역주
480쪽
25,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7~6/1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돈오입도요문 강설 : 단숨에 깨달아 행복한 삶으로	원순	법공양	6	상좌부 불교에서 본 열반	담마빠야 사야도	운주사
2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7	재가불자의 귀감인 유마경 역해	학산 이상규 역해	해조음
3	인생수업(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법륜/유근택 그림	휴	8	담마빠다(법구경)	이중표 역주	불광출판사
4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9	매일 108배 신 자비도량참법	행복문화연구소	이층버스
5	아비담마 길라잡이(1)	아누룻다/대림,각묵	초기불전연구원	10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책세상

"존재 자체로 소중한 너와 나"



나를 살리는 마음 훈련법
김영애 지음 / 라온북
1만6800원



매순간 번민 겪는 우리 삶
단단한 마음 뿌리 필요해
옆집 언니 같은 위로의 말
"상대방 탓 대신 나를 보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It's not your fault(네 잘못이 아냐)."

영화 '굿 윌 헌팅(Good Will Hunting, 1997)'에서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도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 열등감이 크고 허세를 부리며 정신적인 문제를 겪던 반항아 윌 헌팅이 심리학 교수 숀 맥과이어를 만나 가장 크게 위로를 받은 명대사다. 숀은 실수하고 자책하는 윌에게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말을 건네 스스로 닫아놓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내 옆에 숀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마음고생으로부터 한걸음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친척, 친구, 직장동료와의 대인관계부터 내 집 마련, 결혼, 육아 등 생활과 밀접한 일들까지. 내가 내 마음 다스릴 여유조차 없이 우리는 매순간 번민하고 아파하지만 주변에서 또 다른 숀을 만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래, 결국 내 마음 돌아볼 수 있는 건 나뿐이다.

〈나를 살리는 마음 훈련법〉은 29년째 불교를 만나 마음공부를 하고, 여러 사람과 대화하며 상담하는 문사수법회 범열 김영애 법사〈사진〉가 썼다. 책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주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며느리, 문사수법회 법사이면서 성장커뮤니티 '퓨처스쿨' 리더인 김영애 법사가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며 나눈 나와 남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책 이름이 어쩌면 흔한 자기계발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책은 성공한 기업가의 생활 루틴 같은 게 아닌 무언가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누나이자 언니의 공감과 지지가 중심이다.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스스로의 존재가치다. 우리 모두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주변 환경 또는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음속 그늘을 밝힐 수 있게 안내한다.

책에서 저자는 고민하는 이들에게 매순간 〈금강경〉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 인식의 확장을 돕는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는 가르침.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한 것이기에 다른 이를 탓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돌아보자고 저자는 조언한다. 가령 남편과 갈등이 있었다면 남편의 행동이 아닌 나는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보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상대방이 아닌 나에게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영애 법사는 책 첫머리에서 '초심력'을 강조한다. 초심력이란 내 삶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것. 불안하기 때문에 안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게 초심력이라는 뜻이다. 그의 닉네임이 '무상무아'인 것도 고정된 모습이 없고, 나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다는 제행무상과 제법무아에서 따왔다.

책 전반부까지는 마음과 행복이 무엇이고, 과거에 갇힌 내 마음을 보는 것처럼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상처는 밖에서 오지 않고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하는 김영애 법사.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상처받을 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다.

책 후반부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마음 훈련법을 소개한다. 감사의 108배, 스스로의 강점 믿기, 분노를 조절하는 찬탄 발원, 셀프 칭찬과 멍 때리기까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저자의 경험도 녹여냈다.

어느 누구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주도하고, 심지어 바로 여행도 떠날 수 있다고 말하는 김영애 법사. 아마도 MBTI 성격유형검사에서 '극 E(외향형)'에 해당할 것 같은 그는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마인드 기버(mind giver)를 자처한다. 그가 쓴 이 책은 누군가 안심하는 삶을 보내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갈 길 몰라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책 속의 밑줄 긋기

내가 일으킨 반응이니까 괴로움은 모두 내 책임이다. 이제는 조용히 괴로움과 마주해보자.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라 현상이었고, 그 현상은 내가 만들어 낸 것이며 그 힘도 내가 부여한 만큼 위세를 떨친다는 사실을 음미해보자.

–'괴로움은 모두 내 책임이다' 중에서

과거의 나를 고정시켜 놓고 '너 잘못했어, 나빴어, 그때 왜 그랬어?'라며 스스로를 계속 응징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고 마주하자. 그게 진정으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길이고, 진짜 내 마음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나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자' 중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의 사람을 만나는 건 내 잣대가 먼저이기 때문이지 결코 그 사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다. 어디서 누굴 만나든 나의 평가 기준이나 잣대로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만나야 진정한 만남이 이뤄진다.

–'다름을 인정하면 지옥을 겪지 않는다' 중에서



해제 꿈꾸는 스님의 담박한 수상들



해제를 꿈꾸며
원상 스님 지음
시간여행
1만5000원

노인복지 최일선 활동 등
일상 곳곳 깨달음 풀어내

누군가는 말했다. 출가는 용기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먹물옷 한 벌, 걸망 하나를 짊어지고 행각하다가 어느 이름 모를 곳에서 죽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절집의 대중생활도, 수행자의 삶도 결국 넓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사의 한 자락이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로서 노인복지 최일선에서 활동 중인 원상 스님〈사진〉이 발간한 수상집(隨想集) 〈해제를 꿈꾸며〉는 스님이 출가해 수행하고, 공부하고, 복지사업을 하면서 체득한 깨달음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그 안에는 평소 원상 스님이 깨닫고 실천해왔던 지론과 삶의 철학들의 면면이 담겨있으며, 예리한 직관과 역설, 문사(文士)가 갖는 가슴 따뜻한 정서를 함께 보여준다.

실제, 원상 스님은 노인복지 활동을 '효도 대행자'라는 보살행으로 풀이한다.

"원꽃마을의 사명은 입적하신 창업자 덕산당 대종사께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연꽃마을의 정체성을 바로 보여주는 글이지요. 그중에 효도 대행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선봉에 서 있는 연꽃이요, 보살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스님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통해 단호함의 필요성과 독자에게 공감 가는 이야기로 감동을 준다. 특히, 상가(Sangha, 승가)를 설명하면서 직접 대중살이를 하며 깨달은 부딪치지 않는 비결은 인간관계와 처세에 고민이 많은 속인들도 주의 깊게 읽어둘 만하다.

원상 스님이 밝힌 비결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다. 스님은 구시화문(口是禍門), 모든 재앙은 입에서 비롯되니 말을 삼갈 것을 강조하며, 말만 잘 들어줘도 떡이 생기니 경청할 것을 이야기한다. "필요한 말만 하고 경청할 것", 이것은 원상 스님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처세술의 화두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보살행을 하는 스님이기에 국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한 지론도 명징하다.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폭력은 개인의 폭력과 조직의 폭력, 거대한 사회의 폭력이 있고, 이를 견제·제지하기 위해 국가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 "국가는 권력에 순기능하는 집단이어야 한다. 권력을 남용하면 모두에게 혼선을 주고 많은 피해자들을 만든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강조한다.

"한 개인을 훼손한다면 국가가 사회를 훼손하는 것이요, 국가나 사회가 훼손당한다면 당연히 귀결적으로 하나의 개인도 훼손당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연대 속에서 완성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에게 최선을 다하고 개인은 공동체에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원상 스님은 진정한 해체를 "수행자가 각고의 시간과 열정으로 벼락 치는 깨달음이 있고 난 뒤에 갖는 인욕의 선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결제를 했으니 석달 열흘이 지나면 해제는 올 것이지만, 자신의 땀으로 공을 들여 맞이한 해제는 설렘과 보람이 섞여 있음을 스님은 강조한다. 수행자나 속인이나 지금을 인고하며 성실하게 정진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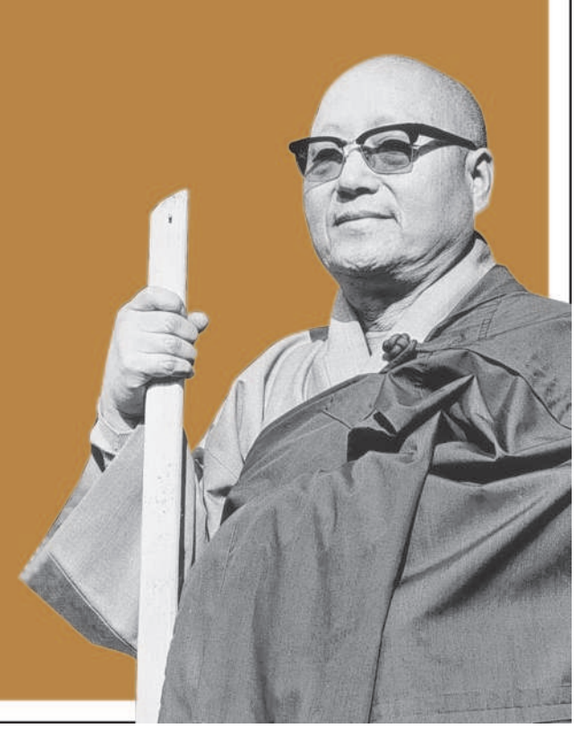
시대의 선각자 탄허 스님의 육성 법문,
열반 40년 만에 문자로 들려오다!

유불선을 꿰뚫은 한국 정신문화의 큰별 탄허 스님의
『주역』, 『논어』, 『치문』, 『서장』 등 주옥같은 명강설!!

이 책은 탄신 110주기 열반 40주기에 문자로 들려오는 탄허 스님의 생생한 육성 법문 그 자체다. 근 40년간 수백 개의 테이프에 채록된 채 아직 세상 빛을 보지 못한 탄허 스님의 육성 법문을 녹취하고 주석을 달아 문자로 되살렸다. 『주역』은 물론 『논어』, 『맹자』, 『도덕경』 등 여러 고전과 『치문』, 『서장』, 『선요』, 『도서』의 핵심을 유불선의 깊은 지혜로 꿰뚫은 강설은 막힘없이 명쾌하다.



禪學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
강설 탄 허
주석 이승훈
후원 월정사
504쪽 | 양장본
3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㉑ 뉴델리에서 며칠 ③



▶한줄 요약
모두 이석원이 제 아버지인 지안 금어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죽은 지안과 정우 스님은 이석원을 난타의 환생이라고 믿고 있었다.

금어 이석원이 난타의 환생?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인다는 살불살조(殺佛殺祖)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말 흉내를 제대로 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조실스님에게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오. '살불살조의 경지를 그대들이 안다고? 만약 그대들이 안다면 무엄이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그는 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오. '그 대답은 붓다가 남긴 스리나가르의 칼이 할 것이다.' '지금 칼이라고 하였는가?' '그렇다. 나는 그 칼을 찾아 스리나가르로 갈 것이다.'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아버지를 죽인 패륜아. 지안 금어의 목에 난 상처는 네놈이 낸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촛대에 너의 지문이 묻었다고 해. 촛대로 내려친 것이라고 이미 판명이 났다는 말이야. 그럼 네놈이 범인 아닌가.

-마음대로 생각해라.

여기까지 말하고 조실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놈이 스리나가르로 가기 전 나를 한 번 찾아왔더랬소. 그는 시골 모 수도원에 숨어서 땔감이나 해 나르면서 연명하고 있었다고 했소. 내가 물었소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야?'

그는 대답이 없었다.

-수사관들이 너를 잡으려고 한다는데 정말 아버지를 죽인 것이냐?

조실이 묻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보내드리기는 했지요.

-사람들은 네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야단인데…?

그가 너무 태연하게 말했으므로 조실은 뜨악하게 그를 쳐다보다가 물었다.

-마음대로 생각하라지요.

그가 내팽개치듯이 대답했다.

-그럼 네가 죽인 것이 아니란 말이냐?

조실은 어이가 없었지만, 물었다.

-죽이긴 죽였지요. 세상 빛을 그렇게 갚게 했으니까.

-세상 빛이라니?

-세상모르고 살 불목하니를 진리를 지향하게 한 죄. 미물에게 진리의 풍광을 가르친 죄.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흐흐흐 웃었다.

-나도 곧 그렇게 갈 겁니다.

그가 웃다 말고 발악하듯 말했다.

-무슨 소리냐?

그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배고픈데 밥이나 좀 주십시오.

-그래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한국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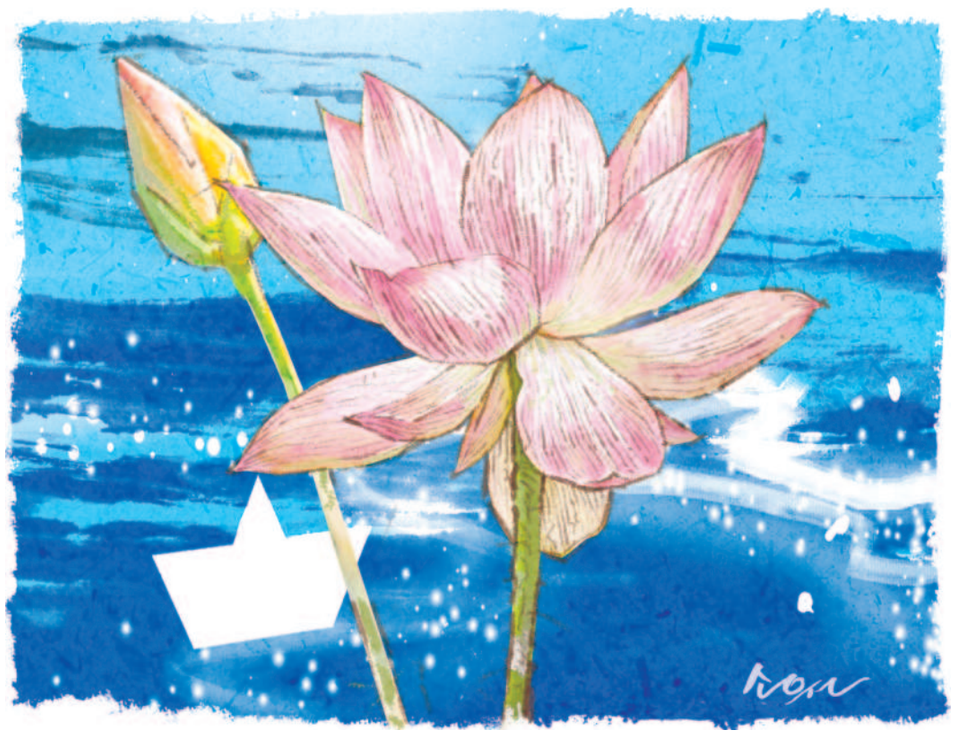
-곧 떠날 것입니다. 내가 잠시 여기 머무는 것은 적어도 날 경찰서에 고발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도 내 아버지처럼 미친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조실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고개를 갸웃했다. 이곳에도 제 아비처럼 미친 사람이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그때 사원에는 늙은 스님 한 분이 한국에서 들어와 살고 있기는 했었다. 정우 스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곳 사람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던 스님이었다. 그에게 26살 난 딸이 하나 딸려 있었는데 대처 종단의 스님도 아니고 해서 말들이 많았다. 딸의 이름은 미순이었다. 나중에야 알았다.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묘했다. 구례 절에 있을 때 조실은 공양주가 마음에 들어 이곳으로 들어올 때 데려왔는데 미순이는 공양주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공양주와 정우 스님 사이에 난 딸이었다. 공양주가 이 절 저 절을 헤맬 때 수도에 지쳐 병이든 스님을 우연히 구해주었다. 그게 인연이 되어 미순이를 낳은 것이다. 그렇다고 정우 스님이 공양주와 함께 생활했던 것은 아니었다. 공양주는 사원 뒤 객사에 살았는데 딸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어 있었다. 미순이도 그 후 아비를 따라 인도로 들어왔다. 들어오기가 무섭게 방을 얻어 생활하고 정우 스님은 천추사원으로 들어왔다. 천추사원에서 그는 포교를 맡았는데 천추사원의 말사인 암자에서 딸과 만나고는 하였다. 바로 이지안 금어가 거처하는 곳이었다.



미순이는 이석원을 보자마자 반하고 말았다. 석원이 보기에 그녀는 26살로 보기에는 너무도 앳되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얼굴이 어찌나 희고 청순해 보였던지 꼭 박꽃 같았다. 그런데 그녀는 이석원이 금어임을 알면서도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석원이 잠시 사원을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그녀의 아버지 정우 스님의 행동이 이상했다. 이석원과 자신의 딸 사이를 눈치챈 정우 스님의 불호령이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는 이석원을 향해 합장하며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오시다니요?

정우 스님의 행동과 말이 이상해 이석원은 자신도 모르게, '네?' 하고 물었다.

-난타 비구께서 이렇게 오시다니요.

이석원은 어이가 없어 입을 딱 벌렸다.

난타? 난타라니?

-왜 이러십니까?

정우 스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석원은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출타에서 돌아오자 그 말을 그대로 했다.

어이가 없어 껄껄거릴 줄 알았던 아버지가 의외로 정색하고 아들에게 물었다.

-정우 스님이 너더러 난타라고 했다고?

-네. 미쳤더라니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내저었다.

-제대로 보았구나.

-네?

-내 천추사원으로 올라가 봐야겠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우 스님을 만나봐야겠어.

여기까지 말하고 조실이 말을 끊었다. 말을 하느라 숨이 가쁜 것일까 생각하며 나는 조실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조실은 눈을 감은 채로 입을 열 생각이 없어 보였다.

-만나보았나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다.

그제야 조실이 눈을 뜨고 고개를 주억거렸다.

-만나 보았다고 하오.

-어떻게 되었나요?

-정우 스님에게 지안 금어가 물었다고 하오. 왜 내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고….

-그랬더니요?

조실이 대답을 하려다 말고 망설였다. 그는 마음을 다잡았는지 잠시 후에야 말을 이었다.

-기다렸다고 하오.

-기다려요?

-어느 날 참선(參禪) 중에 보았다는 것이오. 난타의 모습을. 난타가 오고 있었다고 하오. 천지가 그물(網)인데 그 그물을 뚫고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오.

-그물요?

조실이 나의 되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물을 뚫고 오다니요?

-카르마(karma) 말이오.

카르마?

카르마라고 한다면 생사유전, 그 과정에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을 말한다. 미래에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 바로 업(業)이다.

-그런데요?

생각하다가 내가 물었다.

-그 업이 망(網)이 된다는 말이오.

-망? 아, 그물!

-맞소이다. 카르마 망 말이오. 이승과 저승 사이에 생사유전의 그물이 쳐져 있었다고 하오. 그 누구도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는데 난타가 그물은 뚫고 이승으로 오고 있었다는 것이오.

나는 할 말을 잃고 조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윤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도 모르게 풀썩 웃음이 나왔다.

-그러니까 난타가 이 세상으로 왔다는 말인가요? 그가 바로 이석원이다?

조실이 내 얼굴을 잠시 쳐다보다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 모습을 보자 나는 다시 웃을 수가 없었다. 조실의 표정이 너무 진지하고 엄숙했기 때문이었다.

-묘하군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

조실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정우 스님이나 지안 금어의 경지가 그 정도는 되었던가 보오. 삼세를 내다볼 만큼. 얼마나 수행이 깊었으면….

-믿을 수가 없군요?

-믿어지지 않는가 보오?

조실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나를 따뜻한 어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내저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속에서는 미쳤다는 소리가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 무엇….

-어찌 그렇지 않겠소. 미치지 않았다면….

조실이 나직이 한숨을 물다가 조용히 내뱉었다.

-그러니까 정우 스님이란 분이 이석원으로 환생한 난타를 알아보았다는 말인데…. 이석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궁금하네요?

-처음엔 제 아비나 정우 스님이나 미쳤다고 했다가 그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벽을 보고 돌아앉았다는 것이오.

-돌아앉았다면 역시 그의 참선이 시작되었다는 말이네요?

-맞소이다.

나는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수긍할 수도 없어서 그냥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할 수도 없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고.

-어쩌면 산다는 것 자체가 각본인지 모르겠소.

조실이 고개를 내저으며 뜬금없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다음 말을 이었다.

-아무튼 그 후 일이 점점 묘하게 얽혀가기 시작했소.

-네?

-그들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오. 정우 스님이 무엇을 꿈꾸고 있었는지.

-꿈꾸다니요?

-정우 스님은 엉뚱하게도 이석원을 중심으로 종단을 설립하려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오.

-예? 종단?

-그래서 지안 금어가 한국으로 나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하긴 오해이긴 했소만. 그 도반(정우 스님)이 어느 날 이석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못다 펴신 법을 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종교계는 어지럽게 종파가 갈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정우 스님의 말에 이석원이 갑자기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오. '정말 무슨 소리요? 나 이석원입니다. 이석원! 수도를 하다가 미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청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정우 스님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아버지도 미친 소리를 해대더니 나는 부처 모습이나 그리는 금어요 금어. 금어 이석원.'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세상을 구하려 오셨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에 다시 왔겠습니까. 그것은 속세의 아내를 잃고 다시 일어나 이룬 법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법을 펼 때가 온 것입니다.〈계속〉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모

1. 불교의 현대화 의지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불교방송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2. 방송의 경쟁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조직 경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불교방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인사

위와 같은 인사를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자로 모십니다.

○ 자격 요건 :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불자
○ 제출 서류 : ① 이력서 1부(사진 첨부, 상벌사항 기재, 서명 날인 포함)
② 자기소개서 1부(경력 및 업적 중심, A4 용지 3매 이내)
③ 경영계획서 1부(A4 용지 10매 이내)
④ 불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계증, 신도증, 기타)
○ 제출 기간 : 2023년 7월 10일(월) 09시 ~ 7월 21일(금) 17시까지
○ 제출처 :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문의 전화 02-719-1855)
주소 :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 면접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 서류 제출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불교의 현대화 — 1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2 —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3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현대불교신문 NAVER 현대불교신문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12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⑪ 단오문화 (上)



▶한줄 요약
중국에서 상고시대부터 단오를 불길한 날로 여긴 이유는 양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인데 극단의 기운을 경계한 셈이다. 한국의 경우, 오히려 단오의 강한 양기를 이용하는 뜻을 받아들여 신성하고 길한 날로 여겼다.

'吉인가 惡인가'…상반된 韓·中 단옷날



강릉단오제. 범일국사를 모신 국사성황사 앞에서 제를 올리는 모습. 사진제공=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극단의 강한 양기 경계한 중국
단옷날 '악일' 여겨 적극적 방어
한국은 마을 수호신 풍습 활발
주민 동참으로 마을 축제 승화

음양이 교차하는 오월

올해는 음력 오월의 초입에 하지(夏至)가 들었다. 연중 밤이 가장 긴 동지(冬至)를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한 해가, 하지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게 된다. 그런가 하면 하지 다음 날은 양수(陽數) 5가 중첩되어 연중 양기가 가장 강하다고 여기는 단오(端午)이다. 이처럼 양력 유월의 21일과 22일에 나란히 하지와 단오가 들었으니, 민속 통념으로 보자면 나쁜 음기를 몰아내기에 더없이 적합한 시절인 셈이다.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불렀듯이, 대척점의 하지는 한 해의 반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날이다. 왕성한 양(陽)의 기운 속에 음(陰)이 싹터 한 해의 하반기로 서서히 접어든 것이다. 주역에 "동지에 일양(一陽)이 시작되고 하지에 일음(一陰)이 시작된다"고 했듯이, 최고점을 찍음과 동시에 이미 반대 기운이 싹트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정상에 오르면 언젠가 내려오게 마련이고, 절망의 바닥에서 한 줄기 빛이 시작되는 이치이다. 음양이 교차하는 오월에, 우주 만물은 한순간도 제자리에 머묾이 없음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하루해가 긴 음력 오월을 옛사람들은 '깐깐오월'이라 불렀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오월, 특히 5일을 흉한 달로 보는 관념이 있어 흥미롭다.

중국에서 상고시대부터 단오를 불길한 날로 여긴 이유는 양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강한 양기를 좋게 여겼으나 극단의 기운을 경계한 셈이다. 이는 단지 오월을 악월로 여긴 데 그치지 않고, 단옷날을 '악일'로 여겨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여러 금기를 둔 풍습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중국의 오월은 우리나라보다 무덥고 습한 장마철이라, 각종 독충과 역병·질병이 창궐하였다. 따라서 전갈·뱀·지네·도마뱀·두꺼비를 다섯 독충이라 하여 '단오5충(端午五毒)'이라 불렀고, 쑥·웅황·향료를 넣은 주머니를 아이들 가슴에 걸어 액운과 전염병을 물리치고자 했다. 부녀자들도 쑥과 오독영부(五毒靈符)를 몸에 차거나 머리에 꽂았다. 쑥·부적·약초 등은 단오 풍습의 원형에 해당하는 요소들로 모두 액을 쫓는 의미를 지녔다. 이러한 벽사(辟邪)의 풍습은 단오가 중요한 명절로 자리하는 데 큰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기원전부터 단오를 중시하였고, 지금도 단오절이 춘절·청명절·중추절과 함께 4대 명절로 꼽힌다. 중국의 단오 유래는 크게 두 갈래로 살필 수 있다. 하나는 역사적 인물인 굴원(屈原)을 기리기 위한 데서 비롯되어, 초기의 제사는 위령제의 성격을 띠었다. 또 하나는 오월과 단오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연동된 것으로, 서로 모순되지만 보다 실제적이고 뿌리 깊은 요인이라 하겠다.

오월은 악월인가, 길월인가

이러한 중국의 단오풍습은 우리나라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고려 때부터 쑥·창포로 노리개를 만들고 창포주를 마시는 풍습, 단오부적을 차거나 인형을 만들어 문에 매다는 풍습은 모두 중국에 근원을 둔 것이다. 이후 이들 요소를 한국의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하기도 했으나, 큰 틀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풍습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단오에 대한 인식이 근원적으로 달랐기에, 같은 풍습이라도 반대의 관념 속에서 이루어졌다. 쑥·창포·부적으로 질병과 액운을 물리치고자 했지만, 이는 단오가 악월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오의 강한 양기를 이용하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단오의 화기(火氣)를 몰아내는 풍습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는 동짓날 팥죽을 뿌려 음기를 몰아내듯 단옷날 양기를 억누르는 음양의 이치에 따른 것이다. 오월 또는 단오를 악월·흉일로 여기는 관념은 아예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단오를 신성하고 길한 날로 여겼기 때문이다. 단오를 부르는 우리말 '수리'가 상(上)·고(高)·봉(奉)·신(神)의 뜻을 지녔듯이 단오를 으뜸가는 날로 여겼고, 오월 또한 상달인 시월과 유사하게 인식한 것이다.

이처럼 똑같이 '액운 몰아내기'의 습속이지만, 출발의 방향성은 서로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오월의 액운을 몰아내기 위해 방편을 쓰는 날이라면, 한국에서는 오월의 강한 양기로써 평소 우리 주변에 있는 액운을 몰아내기에 좋은 길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후 차이와 함께 한국인의 긍정적·적극적 사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풍습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정서에 맞도록 수용한 것이다.



신윤복의 '단오풍정'. 사진제공=간송미술관

중국문화와 교류가 컸던 지배층의 기록에서는 단오를 '악일'로 작용한 사례도 드러난다. 이를테면 〈삼국사기〉에 후삼국의 궁예(弓裔)가 단오에 태어났다는 설화를 꼽을 수 있다. 일관(日官)은 궁예의 탄생일이 나라에 이롭지 못할 징조라 왕에게 아뢰어, 사신이 그 집에 가서 아기를 빼앗아 다락 아래로 던지게 된다. 이때 유모가 몰래 아기를 받아 도망가서 길렀는데, 받을 때 실수로 눈을 찔러 한쪽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관념을 반영한 설화일 뿐, 민간에서는 단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싹트지 않았다.

"해마다 오월이 되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제사를 지내는데, 폐지어 노래하고 춤추며 술 마시기를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 춤출 때는 수십 명이 줄을 서서 땅을 밟으며 앉았다 섰다 하면서 손과 발로 장단을 맞춘다. 시월에 추수를 마치고서도 이렇게 한다."

상고시대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풍습을 적은 중국 기록이다. 벼농사를 지어 오월 파종과 시월 추수를 마치면, 하늘과 산천에 제사 지내며 음주가무로 축제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단오는 농사 절기와 결합한 제천의례로, 하늘과 산천의 신에게 제사 지내며 공동체가 함께 즐긴 명절이었다.

공동체의 종합 축제

단옷날이면 나라부터 마을·가정에 이르기까지 제사와 마을굿 등이 이어졌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이날 스님들이 영정을 모셔놓고 범패를 부르며 조상 왕생을 위한 재(齋)를 지낸다"고 하였다. 불교가 성행한 고려 때 사십구재를 비롯한 상례와 기제사를 사찰에서 지내는 이들이 많았듯이, 단오 명절에도 이와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오에는 마을 수호신에게 의례를 지내는 풍습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단오제는 공동체를 지켜줄 신을 섬기는 것이기에, 주민들이 다 같이 동참하면서 다채로운 마을축제의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그 가운데 단오가 성했던 산간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강릉단오제를 꼽을 수 있다. 산신을 모셔와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섬기는 구조를 지녔는데, 주신인 대관령 국사성황신이 바로 신라의 범일국사(梵日國師)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아울러 단오는 연중 양기가 가장 왕성하니 이를 활용해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다양한 풍습이 전한다. 여기에 주로 쓰인 재료는 부적을 비롯해 창포·쑥·익모초 등의 약초이다. 특히 약초는 단옷날 정오 무렵인 오시(午時)에 뜯은 것을 최고로 여겼다. 연중 가장 양기 왕성한 단옷날, 양의 기운이 최고인 시간에 뜯은 약초이니 그 효험이 더없이 클 것이라 본 것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 신흠(申欽)은 단옷날 거리 풍경을 보며 "계집아이 새벽에 일어나 머리에 창포를 꽂고, 마을 집집에서는 병 물리칠 부적을 달았네"라고 노래하였다.

단오의 강한 양기를 경계하여 이를 누르는 풍습도 나란히 이어졌다. 양기가 심하면 불기운을 머금어 화재와 가뭄을 가져오니, 음기를 보충해야 화재를 막고 풍농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주로 '소금 묻기'와 '용왕제' 등으로 대처하였다. 바다를 상징하는 소금을 쓰고 물을 다스리는 용을 섬김으로써 단옷날 화기(火氣)를 잠재우고자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네타기·씨름·석전 등은 고려 때부터 이어진 단오의 대표적인 놀이이다. 다른 명절의 놀이에 비해 역동적인 성격을 지녀, 여름맞이 신체 단련을 위한 의미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동국세시기〉에는 이날 영남의 금산(金山) 사람들이 직지사에 모여 씨름판을 벌였는데, 수천 명의 구경꾼과 함께 연중행사로 이어졌다고 기록했다. 지금도 단옷날 승속이 하나 된 놀이마당을 펼치듯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한 사찰의 역사 또한 오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오절식으로는 쑥떡과 제호탕 등을 꼽는다. 쑥은 단군신화에 등장할 정도로 우리 민족과 관련성이 깊고, 특유의 향과 약용 효과로 삿됨을 물리치는 상징성을 지녔다.

단오는 설·한식·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자리 잡아 풍성한 문화가 전승되었으나, 17세기 이후 이앙법(移秧法)의 확산과 함께 농사력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수경 직파가 주류였던 조선 전기에는 단오를 전후한 기간이 일시적 농한기에 속했으나, 이앙법이 보편화되면서 모내기가 한철인 농번기에 편입된 것이다. 이러한 농사력의 변화는 단오가 쇠퇴한 배경으로 작용하였고, 단오풍습은 밭농사를 주로 하면서 보리 추수가 일찍 끝나는 북부지역에서 활발하였다. 다음 호에는 불교와 단오풍습을 다루고자 한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사단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 종도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여래불교조계종(단)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큰 서원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사단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 창종을 알리며 본 종단과 함께 펼쳐나갈 전국에 계시는 종도 스님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연암당 덕평**
총무부장 **설오**
교육원장 **재오**
종회의장 **국담 민호**
문화원장 **기원 하담**
포교원장 **문성**
재무부장 **보륜 성도**
법인이사장 **현담 법오**
사회부장 **보리암 삼초**
교무부장 **건호**
포교부장 **무진**

입종서류안내 :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연 락 처 : 총무원장 덕평 스님 **010-6219-4757** / 이사장 법오 스님 **010-2357-7747**
총무부장 설오 스님 **010-5385-3658** / 사무국장 이귀재 **010-3727-2632**
총무원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 1동 창대 장터 상가 2층 202호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⑪ 사마타의 단계와 풍경 (1)



▶한줄 요약
'심'과 '사'의 과정을 계속 지속하면 하얀 빛이 나타나고, 다시 계속 집중을 유지하면 그것이 유리처럼 투명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아미타3부경에 공통적으로 '유리의 땅'이라고 쓰여 있다.

사마타 수행 초입서 만나는 '극락의 땅'

석가모니 붓다께서 말씀하신 수행법은 계(戒)-정(定)-혜(慧)이다. 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느낄수록 그것은 더 큰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아픈 몸과 아픈 마음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파도친다. 여기에 불을 붙는 격이 되는 언행이 곧 계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계를 지키기 않았을 경우, 그것은 몸과 마음의 고통이 되어 다시 파도친다. 서로 상승 작용하여, 아주 작은 썰물이라도 몇 배의 밀물이 되어 후려치게 된다. 그 이유는 잠재의식 속의 유사 고통을 자극하여 그것과 함께 증폭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계를 잘 지킬수록 좌선할 때 집중도는 높아진다. 이러한 인과(因果)를 통찰하셨기에 붓다는 먼저 계를 수행의 첫 단계로 놓으셨다. 그래서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욕설과 비방을 삼가야 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나의 잠재의식에 고스란히 저장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부정적인 느낌이 오는 순간, 자동 반사적으로 고통의 기억은 떠올라 순식간에 스스로를 점령한다. 그렇기에 생각의 고리 · 폐습의 타성 · 악연의 도돌이를 끊어내려면, 끊임없이 알아차려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는 계를 지켜야한다.

미소가 기쁨과 선정을 가져온다

잠재의식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 중 붓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수관(隨觀, 느낌 관찰)이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우리가 술이나 담배, 커피 등 기호품에 탐닉하는 이유는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느낌에서 온다. 부정적인 느낌은 몸을 긴장하게 만든다. 부지불식간의 긴장을 풀기위해, 우리는 자동반사적으로 몸을 이완을 시켜주는 술이나 담배를 찾는다. 부정적인 느낌을 바로 따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도 역시 몸을 위축시키고 긴장시킨다. 위협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경직인 것이다.

먼저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알아차리지 못하기에 오온에 휘둘리게 된다. 그리고 얼굴을 찌그러지고 험악한 주름은 늘어난다. 그런데 부정적인 느낌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몸은 경직되어 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미소! 미소를 띠워 긴장을 풀어주자. 미소를 띠는 순간, 어깨와 머리로 몰린 근육의 경직이 풀어진다.

세계적 선지식 틱낫한 스님은 "기쁨이 미소를 가져오지만, 미소가 기쁨을 가져 온다"라는 말씀을 남겼다. 여기서 중요한 요지는 '미소가 기쁨을 가져온다' 는 것이다. 기쁨이 미소를 가져 오지만, 그 반대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먼저 미소를 지으면,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느낌으로 저장되기에, 긍정적인 느낌은 긍정적인 현실을 가져다준다는 말이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알려진 도신 스님도 "내가 웃자,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내가 웃자, 세상이 밝아졌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스트레스 반응에 따른 인체 변화에 대한 실험을 한 바 있다. 실험 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을 똑같이 부여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아무 지시를 안주고, 두 번째 그룹에는 결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웃으라고 지시하

잠재의식 청정하게 하는 법 '수관'
알아차려 오온에 휩쓸리지 말아야
팃낙한 '미소와 함께 명상을' 강조
〈관무량수경〉 선정삼매 단계 묘사

였다. 이에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인체에 해로운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었고,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은 인체와 건강에 좋은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었다. 억지웃음이라도 건강을 호전시킨다는 결과이다.

사마타 수행의 핵심, 몸에 힘 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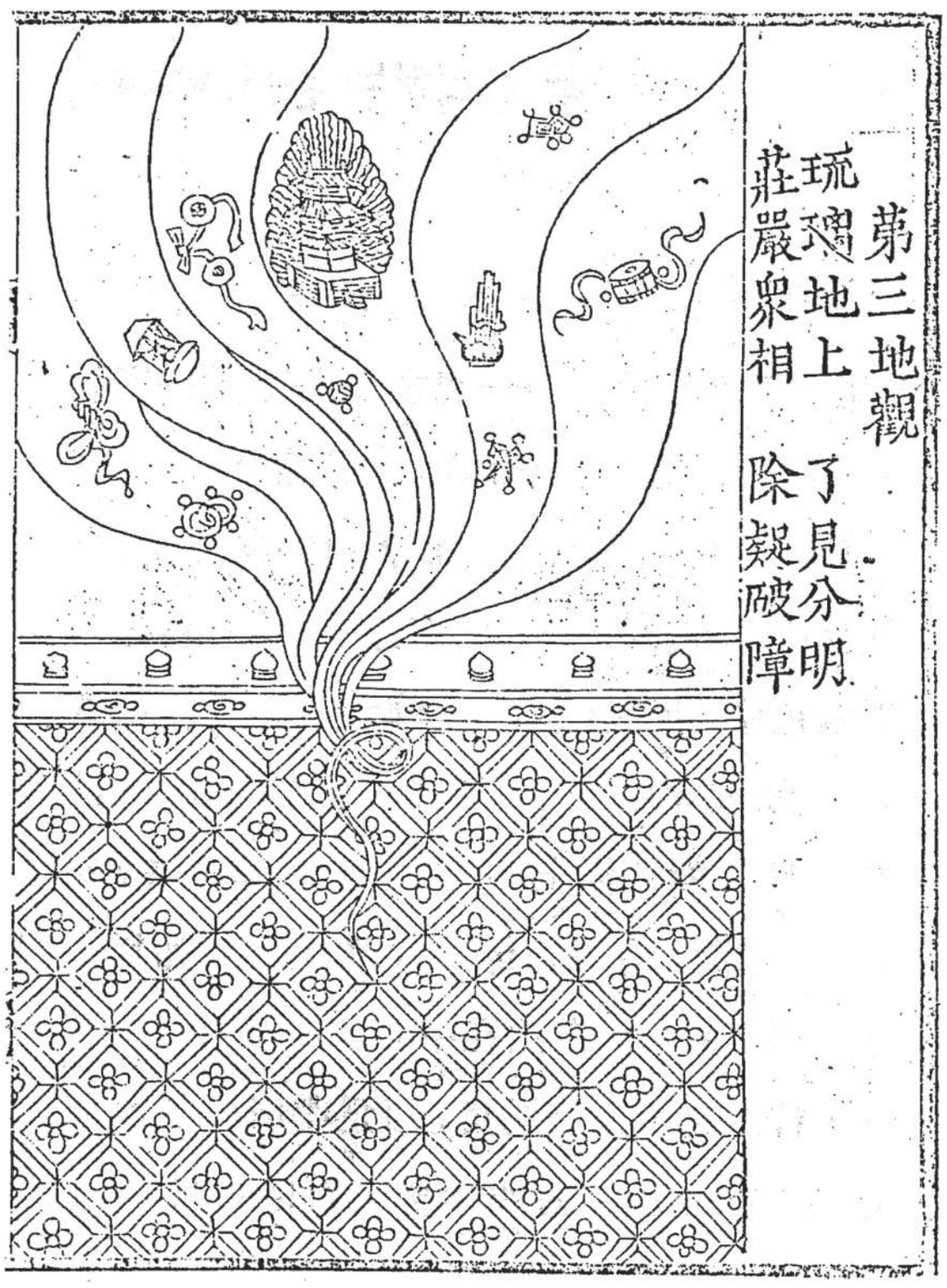
몸의 긴장이 빠지지 않는 한, 선정은 없다. 우리가 장기간 참선을 위해 앉는 이유는 24시간 이상 긴장 상태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꾸준히 앉아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 힘이 빠지는데, 바로 그때 꿈에도 그리던 선정이 온다. '집중해야지' 하고 힘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힘이 저절로 빠지는 순간 온다. 선정 수행의 요령은 집중하되 필요 이상의 힘을 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meditate with smile(미소와 함께 명상하기)"라고 틱낫한 스님은 말씀하신 바 있다.

심-사-희-락, 선정 삼매의 과정

초기 경전에는 붓다께서 직접 말씀하신 선정의 요소들이 있다.

"마음의 오염원이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不善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심, 尋)과 지속적 고찰(사, 伺)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희, 喜)과 행복(낙, 樂)이 있는 초선(初禪)을 구족하여 머문다."

-〈깐다라까경〉 中



그림① 조선 전기에 조성된 〈관무량수경〉의 변상판화. "유리의 지상, 이것을 분명히 보라. 그 장엄중상을 보면 의혹과 번뇌가 타파된다.(琉璃地上 了見分明 莊嚴衆相 除疑破障)"이라는 '제3 극락의 땅(第三地觀)'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은 파헤치고 들어가는 주의력을 말한다. 이것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안정되면 '사' 라 가능해 진다. '사' 는 상세하게 고찰함을 말한다. 이때는 대상의 변화과정(생멸)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심' 과 '사' 가 안정되면, '희' 라는 희열을 맛보게 된다. 쾌감 호르몬이 분출되며 몸과 마음의 상쾌함과 가벼움을 느낀다. 다음으로, '희' 는 보다 높은 차원의 법열(法悅)의 상태인 '낙' 을 체험한다. '낙' 의 어원(산스크리트어)은 '수카(Suhka)' 에서 기인한다. 깊은 고요함과 지극한 평온함인데, 이를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탐닉하던) 세속적 욕망과 기쁨들이 얼마나 격이 떨어지고 조잡한지 알게 된다.

'낙' 의 상태가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극락(極樂)' 의 상태이다. 극락은 산스크리트어로 '수카바티(Suka-vati)' 라고 하는데, '지극히 평온한 곳' 이란 뜻이다. 경전에서는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극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일경성(一境性)의 합일감각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초선정이다.

특정한 선정 주제에 집중함으로써(심과 사), 육촉(육근과 육경의 만남으로 발생하는)의 끊임없는 파도를 멈추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정 주제로는 화두 · 호흡 · 배의 부름과 꺼짐, 그 외 초기불교의 40가지 주제 등이 있다. 그러면 경안을 느끼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도파민 등이 분출된다.(희, 喜) 면역세포 활성화를 해주는 도파민의 다량 분출로, '희' 의 단계에서는 오랜 지병이 낫는 체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에 탐닉하지 않고 계속 집중해 나가면, 몸이라는 개념이 없는 지극히 평온한 경지에 이른다.(낙, 樂) 그리고 자의식에서 벗어나 바탕의식과 합일하는 초선정을 경험한다.

선정 삼매 들 때 펼쳐지는 풍경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극락의 경전으로 유명한 〈관무량수경〉을 비롯한 아미타3부경에게 비유하여 언급되어 있다. '심' 과 '사' 의 과정을 계속 지속하면 하얀 빛이 나타나고, 다시 계속 집중을 유지하면 그것이 유리처럼 투명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아미타3부경에 공통적으로 '유리의 땅' 이라고 쓰여 있다. 사마타 수행의 초입에서 만나게 되는 '극락의 땅' 은 '유리의 땅' 으로 비유 · 설파돼 있는 것이다.(그림①) 온통 모든 것이 투명하다.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 분출되는 상태는 '팔공덕수' 의 분출로 비유하고 있다.

"팔공덕수는 청정하고, 향기롭고, 가볍고(경안), 서늘하고(상쾌함), 부드럽고(유연함), 아름답고, 맛이 좋고, 병환이 사라지게 한다."

-〈관무량수경〉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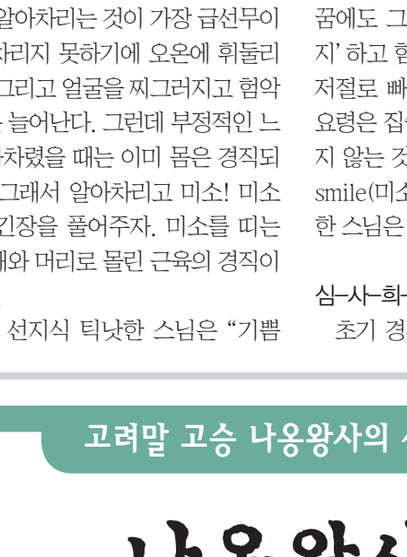
감로수의 맛 또는 깨달음의 맛이란 이런 느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제 번뇌의 몸과 마음이 떨쳐져 나가는 '낙' 의 단계에서는 찬란한 빛(무량광 또는 아미타) 또는 여의주가 출현한다. 그리고 더 이상, 나와 대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객이 하나되는 일경성을 체험한다. 내 몸과 마음에 갇혀 있던 의식은, 그것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다. 청정하고 경계가 없는 바탕의식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참으로 오래고도 오랜 전도몽상에서 깨어난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고려말 고승 나옹왕사의 생애, 영덕 불교의 과거와 현재 재조명한

나옹왕사와 영덕 불교

나옹왕사 현창의 30년 원력과
영덕지역 불교중흥의 기념비적인 결과물



영덕 출신의 고려말 위대한 고승 나옹왕사의 행장과 주요 인연처를 비롯 영덕 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총망라해 한 권으로 묶은『나옹왕사와 영덕 불교』가 출간됐다.
영덕불교사암연합회장, 영덕불교문화발전연구원장 등 소임을 맡아 영덕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철학박사 현담스님(서남사 주지)이 펴낸『나옹왕사와 영덕 불교』는 1부에서 역사 속 영덕 불교와 영덕군에 산재한 폐사지를 두루 답사한 현장 기록을 상세하게 담아 영덕 불교의 과거를 재조명했다. 책에서 현재 영덕군청이 조선시대 흥덕사 절터임을 밝혀 영덕이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음을 드러내 주목 받고 있다.
현담스님은 영덕 불교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영덕읍내에 나옹문학관 건립을 꿈꾸고 있다.

현담스님 지음 / 영덕불교문화발전연구원 펴냄 / 404쪽 / 010-7109-3281

행복이 싹트는 사찰 · 세계불교 교류 중심지

울산 천 만 사

주지 향덕 스님
- UN NGO평화대사
- 사)한국불교명예의전당 총재
- 학생가장돕기 전국연합 총재
- 에디오피아 경제 문화 총영사



울산시 북구 달천 만석골길 108 전화 052-295-3407 pail3407@daum.net

이안의 Media In Buddha ⑰ 영화 〈수라〉



▶한줄 요약
넓은 새만금 여러 갯벌 가운데 '수라 갯벌'이 있다. 하지만 그 갯벌은 새만금 공사로 물길을 끊어졌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직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다. 황윤 감독을 빼어난 비단처럼 곱고 아름다워 수라라고 불렸다는 갯벌을 배경으로 다큐멘터리 〈수라〉를 제작했다.

물길 막혀도 그곳엔 숨탄것들이 있다

영화제에서 상 받으려고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영화제에서는 찬사를 받지만 막상 대중과 만나기 어려운 영화들이 많다. 영화가 별로여서가 아니라 '영상 상품으로서의 가치' 보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영화들. 그런 영화 가운데 〈수라〉도 있다.

〈수라〉를 만든 황윤 감독은 뭇 중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생명체들이 지르는 비명에 공명하고, 그 고통의 근원을 찾고, 찾아낸 근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카메라를 드는 수행자와도 같다. 그리고 〈수라〉를 극장에서 보자고, 그것도 서너 극장이 아니라 전국에 적어도 100개의 극장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고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

지금 한참 "〈수라〉 100개의 극장, 100명의 관객이 됩시다"라는 발원을 세우고 '관객이 보고 싶은 영화를, 관객의 힘으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극장에서 만나보자' 는 이 움직임은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영화 배급 환경에서 마치 영화 안 수라 갯벌의 모습과도 같다.

영화 〈수라〉는 감독 황윤 혼자만의 영화가 아니다. 갯벌의 매혹에 빠져 그곳의 생명들을 기록해 온 사람들, 새만금 공사로 물길이 막히고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생명체들이 깃들어 숨 쉬고 있는 지를 꾸준히 살펴온 사람들이 함께 만든 다큐멘터리다.

〈수라〉는 202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 이후, 환경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시네필들, 일반 관객들, 평단 모두로부터 박수를 받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작품이다. 그런데도 독립 다큐멘터리 극장 개봉이 여의치 않자 이례적으로 '관객이 여는 시사회' 가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시사회마다 참여했던 관객들이 100개의 극장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품은 작품이기도 하다.

학생 시절, 국어 시간에 말의 역사성을 배우는 단원이 있었다. 동물을 얕잡아 부르는 짐승이라는 말이 그냥 불교 신자를 뜻하는 말이려니 생각했던 단어인 '중생' 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뭔가 울컥했다. 종속과문강문계로 생명체를 나누면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 이라고 모든 진화의 제일 꼭대기에 올려놓는 과학 시간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크고 넓은 생각의 바탕이 다른 놀라웠다.

사람 또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은 시대, 문화, 종교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생물학적으로 분류하는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존재' 란 뜻을 담고 있고, 사람이라는 우리말은 '삶' ,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또는 살아가는 존재란 뜻이다. 신분제가 있던 시대에 통치자인 군주 가문 말고 나머지는 성이 뭐든 피통치자인 '백성' 이었고, 왕 아래 신하인 사람은 다 '신민' 이었다.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신자' 또는 '신도' 라고 하고, 신분제가 철폐된 이후 참정권이 있는 사람들은 '시민' 이라고 했고, 근대 이래 나라에서 신분을 인정받고 의무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 받는 사람은 국민이라고 한다.



영화 〈수라〉의 한 장면.

원래 자연인이라는 뜻이었다는 '인민' 이라는 말은 냉전 시대를 거치는 동안 정치 사회적 의미가 덧입혀져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르는 여러 말 가운데 아마도 가장 범주가 넓고 깊은 말은 바로 불교에서 자주 쓰는 '중생' 이라는 말일 것이다.

'중생(衆生)' 은 한자로는 무리 중(衆) 자에 살 생(生) 자를 합친 말이다. 그러니 사람 만이 아니라 부처의 구제 대상이 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나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윤회하는 존재' 를 뜻하는 중생은 인간을 비롯한 삼계육도(三界六道), 즉 욕계(欲界) · 색계(色界) · 무색계(無色界)를 오가는 지옥 중생 · 아귀 · 인간 · 아수라 · 천신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우리말에 녹아들면서 중생이 즘생이 되고, 즘생이 짐승이 되면서 처음에는 모든 생명체를 품는 말이었다가 이제는 사람 말고 나머지 동물을 뜻하는 말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말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를 배제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우쭐거림이 들어있는 말이다. 그런데 가만, 사람도 짐승인데, 왜 짐승이라고 하면 욕이 되지?

막연히 고리타분하고 권위적일 거라고 잘못 넘겨짚었던 불교를 중생이라는 말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자 새마을 운동이니 조국 근대화니 하는 선동 속에서 절이나 무당집이나 다르게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단청 울긋불긋한 것만 보이던 사찰 안에서 목어, 운판, 법고, 범종의 의미도 배우게 되었다.

새만금 공사로 물길 막힌 수라 갯벌
갯벌 속 살아가는 생명들 영상 담아
뭇 생명과 인연이 켜켜이 쌓인 다큐
평단, 관객들 모두에 호평 받은 수작

뭇 생명 안에서 불성을 보고 그 모든 생명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물' 이라니, 그냥 자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자대비하다고 할 밖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서양 과학적 사고방식은 사람이 잘 살려면 자연을 얼마든지 이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부추기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다. 사람이 번성하면 할수록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은 점점 더 파괴되었고, 오늘날 지구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면서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되어가고 있다. 그래도 더 많은 개발이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한다는 정치와 경제의 선동은 멈출 줄 모르고,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는 인공적인 구조물들이 땅과 바다를 바꿔 내고 있다. 그 가운데 아마도 가장 섬뜩한 것이 새만금일 것이다.

그 넓은 새만금 여러 갯벌 가운데 '수라 갯벌' 이 있다. 물이 들 때는 바다였다가, 물이 날 때는 뻘이 되는 너르고 너른 터, 갯벌. 그 가운데도 빼어난 비단처럼 곱고 아름다워 수라라고 불렸다는 곳을 배경으로 다큐멘터리 〈수라〉가 만들어졌다.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든다' 는 발상은 정말 무시무시한 폭력이었다. 그 바다가 삶의 터전이던 모든 존재를 다 묻어버리겠다는 그런 시도가 '경제발전' 이라는 정치적 구호 하나로 그냥 밀어붙여지는 것은 자연에 대한 테러였다.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던 갯벌은 쓸모없는 불모지가 아니라 수많은 갯것들이 깃들어 사는 생명의 보고였고, 그 갯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지역 사람들의 소중한 삶터였다. 그런데도 불도저를 앞세워 밀어붙여지고 메워졌다.

황윤 감독은 영화란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기에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믿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특히 황윤 감독은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 동물들의 목소리를 영화를 통해 세상에 들리도록 하는 작품을 이어왔다.

〈작별〉(2001년 제작, 2008년 개봉)에서는 동물을 좋아하는 봉사자가 동물원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해줄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생명체로서가 아니라 전시물로서 이용되는 동물들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건 사람들 때문에 근친 교배로 태어나 유전적 기형으로 전시조차 되지 못하고 평생 다른 생명과 교감도 할 수 없는 새끼 호랑이 크레인도 있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황윤 감독은 크레인에게 약속했다고 한다. 너의 이야기를 영화로 담아 잘 전달하겠노라고.

〈어느날 그 길에서〉(2006년 제작, 2008년 개봉)는 '로드 킬' , 길에서 차에 치어 죽은 동물들을 카메라에 담는다. 찻길이 생기는 순간 토끼가 늘 풀 뜯던 길 건너 숲에 가려면, 목마른 고라니가 물 한 모금 마시러 옹달샘을 찾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는 동물들에게 황천길과도 같다. 야생동물 교통사고를 조사하게 된 청년들과 감독은 촬영을 위해, 차들이 질주하는 위험한 도로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거기서 죽어간 동물들을 카메라에 담아 묻는다. 이런 길이 최선이냐고.

〈잡식가족의 딜레마〉(2014년 제작, 2015년 개봉)에서 감독은 야생 동물이나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이 아니라 우리 상에 오르는 동물들에게 눈길을 주게 된다.

황윤 감독은 이 영화를 촬영하기 전까지는 동물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에 대한 편애였다고 고백한다. 늘 밥상에 오르는 동물인 돼지, 소, 닭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2010년 구제역으로 돼지들이 살처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먹는 동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돈가스 맛있게 먹고, 돼지를 고기로만 생각해 왔지 동물로서 여긴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실제 돼지를 봐야겠다는 생각에 농장을 찾아가 돼지와 친구가 되면서 돼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동물인지를 알게 된 감독은 〈잡식가족의 딜레마〉라는 자기 가족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유를 갈망하며 새끼를 사랑하는 엄마돼지의 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동물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전령사로 살아온 황윤 감독은 2003년 수경 스님을 비롯해 가톨릭의 문규현 신부, 원불교의 김경일 교무, 개신교의 이희운 목사까지 4대 종단의 성직자들이 새만금 갯벌 보존을 호소하며 해창갯벌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할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구간에 참여했었다.

그런데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3년 후 시작됐던 다큐멘터리는 주인공이었던 지역 어민의 사고사로 중단되었으나 감독 가족이 군산으로 이사하면서 다시 새만금을 찾게 되었고, 감독은 카메라를 놓았고, 이미 갯벌은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수라갯벌에서 청년이 아버지가 되는 세월 동안 내내 그 생명들을 기록하던 사람들과 만나, 그 인연으로 〈수라〉를 만들게 된 것이니, 켜켜이 얽힌 인연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 인연이 100개의 상영관에서 개봉되기를, 우리 사람도 뭇 중생 가운데 하나로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본 죄' 를 함께 지고, 그 업을 함께 풀기를 10년이나 물이 들지 않아도 바다를 기다리며 살아남은 흰발농게의 간절함을 담아 기원한다.

〈영화평론가〉





분별 쉬면 그것이 곧 보리

〈菩提〉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㉒ 옷 속의 여의주

〈원문〉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옷 속에 여의주를 매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궁핍을 면치 못해 객지를 다니면서 밥을 빌어먹는 것과 같다. 비록 빌어먹는 신세지만 여의주는 그대로 옷 속에 있느니라. 문득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 옷 속에 구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 그는 여의주를 가지고 있으므로 큰 부자인 셈이니라. 그런데 이 여의주는 본래 그의 옷 속에 있었던 것일 뿐 밖에서 얻은 것이 아니니라.

아난아, 저 연야달다가 미쳐 달아났던 광기(狂氣)가 쉬면 미치지 않았을 때로 돌아오리라. 비록 광기가 쉬지 못한들 보리의 성품이 어찌 유실되리요. 너의 마음속에 연야달다의 광기 같은 것이 쉬면 곧 보리라 수승하고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 법계에 두루한 것이라 남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니라."

〈강설〉 여의주(如意珠)라는 보배 구슬이 있다. 범어로 마니(摩尼:mani)라 하여 마니주(摩尼珠)라고도 한다. 이 구슬의 효능이 재난과 질병을 없애주고 더러운 물을 맑게 해주며 물의 색깔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때로는 '수청주(水淸珠)'라 부르기도 한다. 용(龍)이 여의주를 물고 풍운조화(風雲造化)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한다.

〈법화경〉의 보주유(寶珠喩)와 같은 말로 옷 속에 여의주를 매고 있는 사람이 거지행각을 한다는 이야기다. 구슬이 있다는 걸 모를 때는 걸식으로 연명하지만, 알고 나면 여의주가 값비싼 보석이므로 부자라는 말이다. 또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들어있는 말이다. 거울을 보다가 미쳐 달아난 연야달다의 광기가 쉬면 미치지 않았을 때의 본래 상태가 회복되듯이 이 대목에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여래장묘진여성인 보리(菩提)가 연야달다의 광기가 쉬면 본래 정신이 되는 것과 같아 '쉬면 보리(歇則菩提)'라는 말이 나왔다. 가끔 인용되는 말이다. 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이 생겨 진로(塵勞) 속에서 허덕이므로 중생의 세계가 되었으나 이것이 쉬면 부처의 세계라 따로 부처의 세계가 없다는 말이다.

보리인 진여(眞如)의 마음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뛰어나고, 깨끗하고 밝아 본래 법계에 두루한 것이라 다른 데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다시 마음의 본체(菩提)가 '횡변시방(橫徧十方)이요 수궁삼제(竪窮三際)'하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공간적으로 시방이 다 포함되고 시간적으로 삼세에 뻗쳐 있다는 이 말은 각체(覺體)인 보리가 무궁무변(無窮無邊)하다는 말이다. 〈능엄경〉에서는 이러한 각체를 중생은 세 가지 상속하는 분별 때문에 등지게 된다고 하였다. 세 가지 상속이란 세간(世間), 중생(衆生), 업과(業果)라 하였다. 세간 상속이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차별을 내서 분별하는 것으로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상대적인 분별을 말하고 중생 상속은 부처가 아닌 중생이라, 중생을 핑계하여 분별하는 것이다. 업과 상속은 업에 따른 과보를 이리저리 분별하는 것이다. 이 삼종상속(三種相續)이 끊어지면 망(妄)의 원인도 없어진다고 경에서는 말하였다. 이러한 분별이 쉬는 것이 결국 연야달다의 광기가 쉬는 것이다.

〈신심명(信心銘)〉 첫 구절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을 꺼릴 뿐이다.(至道無難 唯嫌揀擇)"라고 했듯이 세 가지 상속하는 것을 분별하지만 않으면 따로 닦을 것도 없다는 뜻이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모르니까 하는 것이지, 알고 나면 닦을 것이 없어진다는 말로 이러한 경우를 닦을 게 없이 닦는 '무수지수(無修之修)'라 한다. 〈임제록〉에도 이러한 말이 나온다.

若人修道道不行 만약 누군가 도를 닦는다 하면 도는 닦아지지 않는다./萬般邪見競頭生 온갖 그릇된 소견만 다투어 일어날 뿐/智劍出來無一物 지혜의 칼을 빼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베어 버려야/明頭未現暗頭明 밝음이 나타나기 전에 어둠이 밝아지리라.

한 생각 일어나면 이미 망(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망(妄) 그 자체도 진(眞)이라는 것이다. 마치 거울에 비친 영상 그대로가 거울이듯이 영상을 떼어 놓고 영상이 안 나타나게 하는 거울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㉒ 부처의 지각 경계

지금 보고 듣는지 확인하라

세상은 멈추어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존재한다는 마음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번민을 가진다. 우리가 번민에 대해 모르는 것은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단지 오온은 번민이 생길 수 없다는 지극히 간단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민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번민이 왜 개체적인 번민일까를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착과 욕망에 따라 번민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오온의 화합은 사람의 손금처럼 같은 것이 없다. 그만큼 형성된 길이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양이 같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지만, 물질의 세상은 그럴 수 없다. 오온은 조건의 인연으로 모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조건만큼의 인연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므로, 조건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지만 마음이 위를 볼 필요도 없고, 아래를 볼 필요도 없는 경지에 이른다면 개체의 번민은 나타날 수 없게 된다. 만약 여기에 머물지 않고 변하는 모양의 상태에서 무엇을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를 돌이켜 볼 수만 있다면, 인연으로 모양이 생겨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속에 나라는 실체가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인무아와 법무아를 증득하여 번뇌장과 소지장을 끊어 없애고, 분단생사와 번역생사를 멀리 벗어나야 하네. 탐진치의 근본 번뇌와 성냄, 한탄, 전도된 생각 등의 수번뇌를 끊어낸 것을 일컬어 부처의 지각 경계라 하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끼사 고따미라는 여인이 자식을 잃고 정신이 혼미하여 온 마을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아들을 구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오게 되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 그곳에서 겨자씨 한 줌을 구해오라고 하셨다. 물론 까사 고따미는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런 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녀는 부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시켰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법문하신다. "끼사 고따미여, 너는 너만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음이 있느니라. 그리고 죽음은 중생이 자기 욕망을 다 채우기도 전에 그를 데려가 버리느니라." 끼사 고따미는 설법을 듣고 일체의 모든 현상은 무상하여 오래 가지 못하고, 모든 생명체는 자기 욕망을 성취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다가 불만족 속에 죽게 되고, 일체의 사물에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나라는 주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끼사 고따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출가의 길을 가게 된다. 끼사 고따미가 알아낸 것이 예전에 없었던 일이지만 지금 드러난 것은 아니다. 무상하고, 무상한 것을 소유하려 하고, 무상한 것을 소유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물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지만, 집착 때문에 무상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부처님의 눈과 귀가 따로 있고, 중생의 눈과 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고 듣는 것에 오고감이 없는 줄 알고, 마음 안에 다른 모양을 만들지만 않으면, 찾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버리는 마음도 생겨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모양이나 느낌에 나라는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과거에 지어놓은 인연의 습기가 살아나, 줄 것이 있으면 주게 되고, 받을 것이 있으면 받게 되는데, 그 일은 그가 멈추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일이 된다. 인연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연이 끊어진 곳에서 마지막 남은 몸의 인연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관찰하여 주체가 없는 줄을 여실히 알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비범하여 우러를 다른 소리가 들린다면, 잠시 바쁜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곰곰이 참구하는 지혜가 잃어버린 보배를 발견하는 일이 된다. 부처님의 지각 경계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것에 있지,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곳에 있지 않음을 알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여기에 가졌다는 것이 있고, 가진다는 것이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있으면 세상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비상비비상처정'을 이루는 방법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㉒ 비상비비상처정

살갗 관법

살갗 관법은 손가락 운동과 병행된다. 검지를 편안하게 구부린다. 자세는 의자에 앉은 바른 자세, 무릎 높이를 수평으로 유지하고,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워 준다. 양손을 수평으로 해서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검지를 구부린다. 의지를 미심에 둔다. 삼차신경 안분지의 영역을 살펴보는 관법이다. 나선 호흡으로 꼬리뼈까지 들이쉰 다음 천천히 내쉬면서 머리부를 씻어준다. 자자작 자자작 자극이 생겨나고 심장 박동이 집중한 부위에서 느껴지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 쪽으로 올라간 경로에서는 두개골 안쪽 감각을 살펴본다. 눈 옆으로는 관자놀이까지 상태를 살펴보고 눈 아래쪽으로는 상악뼈 접점까지를 살펴본다.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경수부를 세수한다. 그러면서 가로막 신경의 경로를 관찰한다. 경수 3, 4, 5번에서 시작된 가로막 신경이 쇄골 밑으로 주행하여 폐 심장으로 들어가고 횡격막을 거쳐서 간, 비장, 부신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살펴보는 관법이다. 날숨에 목신경 3, 4, 5번의 경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살갗의 감각을 살피고 해당 장부의 상태를 살펴본다. 특히 호흡이 들고날 때 횡격막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그 움직임으로 야기되는 장부 상태를 지켜본다. 부신에 집중했을 때 열기를 감지하고 그 열기의 경로를 지켜볼 수 있으면 된 것이다. 호흡을 꼬리뼈까지 나선으로 들이쉰 다음 천수부를 세수한다. 의지는 천골의 팔요혈(八凹穴)을 주시한다.

검지를 억제하면 검지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이 수축되고 항진된 상태이다. 특히 자율신경의 부교감 체계가 항진되어 있다. 천골에는 좌우로 여덟 개의 구멍이 뚫려있다. 그 구멍으로 천골신경이 주행한다. 검지를 억제하면 천골신경이 수축되고 부교감 체계가 항진된다. 그 상태에서 천골 신경의 상태를 주시한다. 신장, 방광, 직장, 성선신경총의 상태가 드러나고 천골 안쪽에서 반응하는 교감신경의 상태가 드러난다. 살갗 호흡을 통해 천골부 세수를 충분히 이루었어도 이 과정에서 그때와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엄지손가락 관법

바른 자세로 앉아서 엄지손가락을 구부린다. 그 자세에서 뒤통수 시각피질 부위에 의지를 둔다. 나선 호흡으로 꼬리뼈 끝까지 들이쉰 다음 천천히 내쉬면서 뒤통수를 주시한다. 자극감이 생겨나고 심장박동이 느껴지면 날숨의 감각을 얼굴 쪽으로 끌고 온다. 뒤통수에서 상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관찰한다. 경로상에서 자극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자극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켜본다. 이때 함께 주시해야 할 부위가 있다. 멈춘 부위에 자극이 일어날 때 다른 부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자극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다. 특히 상악부에서 멈추었을 때 다른 부위에서 일어나는 자극들을 세심하게 살펴본다. 체감각 진단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다. 다양한 부위에서 자극이 일어난다. 폐, 심장, 간, 비장에서부터 각 부위의 근골격에 이르기까지 무려 40군데 정도에서 다양한 자극이 일어난다. 충분하게 관찰하고 숙지되었으면 다음 과정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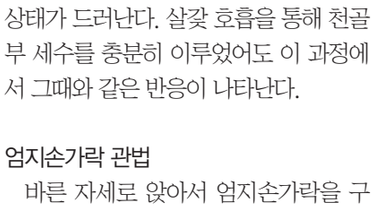
엄지 억제 흉수부 관법

호흡을 꼬리뼈까지 들이쉰 다음 천천히 내쉬면서 흉수부 전체를 관찰한다. 자극감과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면 가슴신경 전체로 심장박동을 확장시킨다. 날숨의 감각과 심장박동을 동치시킨 상태로 흉부 전체를 훑어가면서 살갗의 감각을 지켜본다. 특정한 자극이 생겨나면 그 부위에서 멈추고 다른 부위상태를 함께 관찰한다. 다리부에 자극이 오는 것도 함께 관찰한다. 어떤 경로로 자극이 내려가는지를 살펴보고 경로를 숙지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명산대찰의 수천만원

의 시설들! 본사 견본과 법당서 소리 비교시 죄송하지만 한결같이 장난감 소리 차이!

▣ 그 이유 : 본 품은 디지털 염불전문시스템으로 특수제작 (기존품들과 부속이 전혀 다름)
▣ 특징 : 다루기 1초 / 고장없음 / 현장 기존시설가에 1/3

본 제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오직! 소리만 비교만 해보는 조건으로 전화하시면 반드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에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및 핀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충전식 각종 방생용 전문판매, 시설가격 190~사찰 규모따라 비용 추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39호 | 17 | 전면광고

분에 넘치는 큰 이익을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고 하셨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보왕삼매론》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 • 부지 : 1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10억
- 위치 : 강원 동해 암자 • 부지 : 110평
- 건평 : 30평
- 시내, 주차가능 • 매가 : 2억 2천 5백만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포교원(급) 안내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층에 2층, 40평
- 인근 상권 주거 및 재래시장 밀집
- 보증금 700만원, 월세 55만원 (관리비 없음)
- 시설비 : 1,300만원

010-5635-6199

사 찰 안 내

- 전세가능
- 위 치 : 충남 금산 추부
- 대 지 : 280평, 임야 : 50평, 총 330평
- 삼성각 : 7평, 전통 기와 목조건물
- 법 당 : 22평, 경량골 철골
- 요사채 : 슬레이트 지붕, 블록, 방 5개, 거실, 주방, 화장실
- 대전 옥천 15분 이내(교통 편리)
-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
- 전세 : 1억 5천만원, 매매 : 2억 5천만원

010-3875-6305

사 찰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건물, 토지 지주 승락시 지번공가능, 상담 후
- 위치 : 경기권, 경북권, 충북권, 충남권, 강원권
- 소 · 대형 사찰 인수하실 분 단체나 법인, 개인 매수인 직접시 직거래 가능
- 소형 2,000만원부터 100억대 사찰 또는 소형 / 나는 자연인이다 정도의 오지 터 〈직거래 가능〉
- 공시지가 이하 소형임야 또는 대형임야 사찰 부지 1. 계약금 걸고 대형사찰 잔금 대출금으로 양도 가능

(도암)010-3184-5362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1천 6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사찰 안에 계곡 축대 재공사 완료
- 차로 확장공사 완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절충 가능)

010-5421-1536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식기일체 보시합니다)
- 대지 143평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당일 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노스님 몸이 약하신 관계로 양도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 맺습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부근
- 대지 약 365평, 가용 평수 약 600평(하천부지 포함)
- 법당, 약사여래, 삼선각, 요사채, 스님이 사용하는 방 3칸, 입석부, 종무실 1개, 창고 2개, 신도님 식당, 23년 초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주차장 완비
- 시내버스 거리,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 가액 : 4억 1천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절 창건한지 90년

010-4583-4895

암 자 안 내

통영 바다와 산의 경치, 공기가 좋은 곳

- 법당, 삼존불, 신중, 약사불, 칠성, 용왕, 산신각, 집기 일체 포함
-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대지 : 법당과 텃밭 포함, 106평 (주차 다수 가능)
  ※보살님과 법사님도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344-6667

김해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 구산동 시영 아파트 상가 3층, 301호
- 3층 크기 약 60평
- 매매금 : 2억 8천만원 (시설 포함, 융자 1억 포함)

010-3485-49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읍내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27평
- 대지 200백평, 매매 및 전월세
- 매매 : 3억 1천만원 / 전월세 : 2,000만원에 월 40만원

010-9485-93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호선, 5호선 전철 6분 거리
- 법당 3층 건물에 1층, 40평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70만원(시설비 절충)
- 스님 사정상 임대함

010-3167-17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상대동 3층 중 2층
- 법당 34평,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당, 방1개, 화장실
- 보증금 5백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천3백만원(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7476-90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대지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7m 정도) / 부처님 사리(협의)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앞 개울이 있습니다. 앞산 능선이 와불로 되어있습니다.
- 매매가 : 2억 3천만원(절충 가능)

010-2807-0509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9천만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 82번지
- 대지 : 약 230평 (요사채, 법당, 공양간 등)
- 가액 : 3억(절충가능)

010-9389-7457

사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 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 찰 안 내

강서구 방화동 상가 3층 32평

- 법당 넓은평 : 방2, 주방1, 화장실 복도 2칸 단독 사용, 창고방1
- 2000/65만원
- 엘리베이터, 주차 無(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음)
- 주변에 대형마트, 음식점, 재래시장 있음 부처님 외 인등, 북 등 전체 보시
- 시설비만 2,000만원(비품 모두 새것) 몸만 오시면 됩니다.바로 기도 수행 할 수 있음

010-6613-226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당진 면천, 서해. 대전고속 IC 3분거리 조용한 산속임
- 법당 20평, 정무소 5평, 요사채 25평(양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스님이 연로한 관계로 양도함.
굿당 운영도 가능

010-5404-9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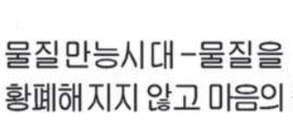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010-4727-60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4727-6065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포교원 안내(40년)

- 위치 : 수영 R-Y 부근, 2층 40평
- 법당 : 아미타, 관세음, 지장, 신중, 영단, 소불 200불
- 전세 : 2천/35만원, 사권 2300만원

주지 소임 관계로 급, 즉시 법회 가능

010-9695-1060
051-727-2421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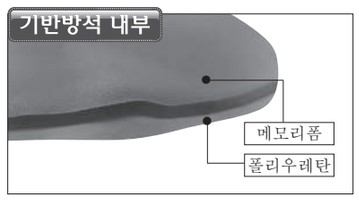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39호 | 18 | 전면광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면 무슨 일이든 마침내는 이루어진다. 저 시냇물이 흘러 흘러 마침내 바다에 이르듯이.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극락왕생 · 인도환생 발원
반려동물 천도재 · 49재
태아령(낙태, 유산) 영유아 천도사찰

해인승가대, 동국대 출신 철학박사 큰스님 직접 집전

부산 온천장 약불사 051-556-2270
반려동물 수의판매 · 부산 반야원 010-8543-4289

범음·범패 학인 모집

각단의식,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및 개인지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 륜 사
전화 010-7579-8200



영남범음범패

통범(구암스님)소리를 채보하여 악보로 수업

- 의식 및 사물장단
- 태평소 · 대금 · 작법무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덕산2길 32-81, 영원사

010-3156-2211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무료상담

(법률 세무 및 신행상담, 명상법회)
선행, 송기명 법사(010-3686-4807)
정호스님(법무사)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명상법회(보리방편론)
명상지도사 : 김석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선정원 02-733-552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불자들이 기도 이끌어 주시고 정진하며 사실 스님 모십니다.

(시내 선원이라 조석 예불은 없습니다.)

010-2811-0118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천도비는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천도하면 90% 이상 성불됩니다.
※ 몸 아프신 분들 천도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어렵고 힘든 분을 위해 상담을 하시는. 사찰 불자님, 철학관, 심리상담사, 무속신앙인, 정신신경과 의료인께 5장6부론, 사상체질론, 기혈음양론, 병인론, 치유심리학을 공개 전수함

신경성 화병. 불안. 의처증과 의부증 (부부문제 상담교육)
실패 좌절 배신충격에 큰병 온다. 기(氣)순환과 신진대사 치유법.
정신병証과 특수이상성격 원인분석.
암시, 최면술. 명상. 한의학의 수승화강. 주역의 수화기제법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철학(한의학)과 과학 치유심리학으로…

문자남김 심리철학 010-4078-7810 혜천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⑩ 즉심시불(卽心是佛)



마음·부처·중생은 차별 없어

5월의 산사 그리고 도심의 거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으로 환하게 빛난다.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빛나는 5월. 그 가슴 벅찬 5월에 새겨보는 경구가 있다. 즉심시불(卽心是佛)이다. 즉 마음이 곧 부처라는 즉심시불(卽心是佛). 〈화엄경〉에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는 경구가 있다. 곧 마음이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이며 진심이 아니면 부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부처' 라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 맑고 푸른 5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주변의 모습, 모두가 부처의 모습 아닐까?

그래서 "성불하세요"라는 인사에 앞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하며 말부터, 생각부터, 행동부터, 얼굴모습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모습에서 부처님 법 전하는 우리의 올곧은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나' 라는 마음의 부처의 모습이리라.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감사함을 전하는 달이다. 가까운 산사도 좋고 발길 닿는 대로 마음 내려놓고 내 부처님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마음이 곧 부처" 우리 불자님 모두의 마음이고 소원인 것을. 나무석가모니불.

〈서예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③③ 유인서의 '표정'

단단한 삶의 기포 찾아서
〈氣泡〉

표정/ 유인서

서울역 화장실, 토닥토닥 화장중인 또래의 처녀에게 건네지는 거울 속 여승의 눈빛이 아슴하다 더러는 저 눈빛을 본 적이 있다 동성로 현란한 거리에서 지나가는 남녀들 보던 밀짚모자 속 어린 여승의 눈빛도 저것이었다 찰나 속의 하염없음

예초기가 지나간 풀밭 위의 바람 냄새, 애벌 깎은 나무의 속껍질 냄새, 농식기의 엷은 쇠비린내, 감기 끝에 돋아난 생비린내, 갓 버무린 겉절이 냄새 같은 사람의 냄새

어둑살 내린 직지사 대웅전, 찢어진 파초그늘에서 훔쳐들은 젊은 스님네의 염불 소리도 저 부근에 있었다 세상 어떤 처연한 울음의 표정과도 닮지 않은 특이한 슬픔의 질감이 거기 있었다 손끝으로 쓸어본 그것의 표면에는 흑점 같은 어혈 같은 목탁 소리 물소리에도 풀리지 못한 단단한 기포가 남아 있었다

쉬이 물크러지지 않을 열망의 그림자를 앞세우고 가는 저이들의, 몸이 고요해지고서야 끝내 닿을 수 있다는 그 곳은, 어디

– 유인서 시집, 〈그는 늘 왼쪽에 앉는다〉 창비, 2005

아, "사람의 냄새"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사모하던(사무치던) 여승의 냄새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바로 (진짜) 사람에게만 나는 "사람의 냄새"였구나. 아, 여승의 눈빛이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서울역 화장실"에서 "토닥토닥 화장중인 또래의 처녀에게 건네지는 거울 속" "아슴"한 눈빛이 그것이었구나. "동성로 현란한 거리"를 "지나가는 남녀들"을 몰래 "보던" "밀짚모자 속 어린 여승의 눈빛"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찰나"지만 영원하고 "하염없"는.

"예초기" 같은 예리한 감각을 지닌 유인서 시인은 그 냄새를 "예초기가 지나간 풀밭 위의 바람 냄새", "애벌 깎은 나무의 속껍질 냄새", "농식기의 엷은 쇠비린내", "감기 끝에 돋아난 생비린내", "갓 버무린 겉절이 냄새"라고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여승' 이라고 해서 그런 냄새가 싹 지워진 '사람 너머의 사람' 이 아니라는 것을 유인서 시인은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여승의 눈빛 또한 그렇다. '여승' 이라고 해서 우리 중생이가 닿지 못한 저 어디, 높은 사막이나 설산이나 천상에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또래 처녀들처럼 "서울역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토닥토닥 화장을 하고 싶기도 하고, "동성로 현란한 거리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화양연화(花樣年華)들처럼 연애를 하고 싶기도 하다. 물론, '찰나' 지간이지만 '하염없' 이. 필자가 (특히 젊은) 여승들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들도 그 같은 "사람의 냄새"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목석(木石) 같은 사람이 어찌 사람이겠는가. 그냥 돌덩어리와 나무이지. "사람 냄새"가 안 나는 중[승(僧)]은 중이 아니다. 그냥 막가지다. 그런 막가지에게는 불자들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 냄새를 못 맡는데, 어찌 내 '삶의 냄새' (마음)를 맡아주고 알아주고 안아주겠는가.

근데, 기막힌 것은 "젊은 스님네의 염불 소리"가 "저 부근" (어둑살 내린 직지사 대웅전, 찢어진 파초그늘)에 있다는 것이다. "세상 어떤 처연한 울음의 표정과도 닮지 않은 특이한 슬픔의 질감이 거기 있"다는 것이다, "흑점 같"기도 하고, "어혈 같"기도 한. 유인서 시인이 앞 연에서 "사람 냄새"를 말하고 "밀짚모자 속 어린 여승의 눈빛"을 얘기한 것도, 기실은 이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흑점 같"기도 하고, "어혈 같"기도 한 "특이한 '슬픔' 의 질감"은 오히려 "특이한 '희망' 의 질감"이다. 대자유, 대자재, 대해탈의 통쾌한 삶을 위해, 시원한 삶을 위해 모든 비탄과 절망과 고뇌와 청춘과 사랑을 내려놓고 "어린 여승"은 이 더운 여름날 찢어진 "파초그늘에서" 오직 부처님만을 생각하며 부처님을 염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염불이 "세상 어떤 처연한 울음의 표정과도 닮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데 유인서 시인은 단지, 단지, 그것 때문에만 "젊은 스님네의 염불 소리가" "세상 어떤 처연한 울음의 표정과도 닮지 않은 특이한 슬픔의 질감이 거기 있"다라고 했을까. 아니다. 유인서 시인의 속셈은 바로 그 다음 행에 있다. "목탁 소리 물소리에도 풀리지 못한 단단한 기포가 남아 있었다". 이 한 행이 바로 "세상 어떤 처연한 울음의 표정과도 닮지 않은 특이한 슬픔의 질감이 거기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기포(氣泡)가 무엇인가. 조금만 건드려도 터져서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유인서 시인은 그 기포를 "목탁 소리 물소리에도 풀리지 못"하는 "단단한 기포"라고 했다. 대체 얼마나 단단한 기포이기에 "목탁 소리 물소리에도 풀리지 못"하는 걸까.

맞다. 삶은 분명 '포영' (泡影)이다. 한바탕 '기포' 다. 그러기에 어떤 이들은 출가하고, 어떤 이들은 불자가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불경을 읽고 부처님 이야기를 되새김하며 산다. 그때 기포와 포영은 그냥 기포와 포영이 아니라 '단단한' 기포와 포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인서 시인은 시치미를 뚝 떼고 "그 곳은, 어디"라고 마지막에 되묻고 있는 것이다.

그럼, 유인서 시인의 말처럼 "그 곳은 (정말) 어디"일까. "쉬이 물크러지지 않을 열망의 그림자를 앞세우고 가는 저이들의, 몸이 고요해지고서야 끝내 닿을 수 있"는 "그 곳은," 정말 "어디"일까. 어디에 있을까. 바로 내 곁에 있다. 내 속에 있다. 내 내부에 있다. 대자유, 대자재, 대해탈하겠다는 '단단한' 다짐은 안과 밖, 내부와 외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안' 이 곧 '밖' , '내부' 가 곧 '외부' 인 것이다. 안과 밖이 한 몸으로 안팎 없이 존재하고 있고, 내부와 외부가 '찰나' 의 거리도 없이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것이다. 안과 밖을 일러 안과 밖이라 할 수 없고, 내부와 외부를 일러 내부와 외부라 구분 짓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린 여승", 아니 모든 승려들의 "쉬이 물크러지지 않을 열망"이고 "기포"이고 "몸이 고요해"져야만 "끝내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우리 모두 '자성불' (自性佛)인 것이다.

시인의 노래는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다. "그 곳은, 어디"를 찾아 우리는 오늘 또 다시 삶의 여정을 떠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몸이 고요해지지 못 하면 끝내 닿을 수 없는 "그 곳은 어디"를 찾아 다시 힘차게 떠나보자. 서로의 '표정' 을 '표정' 삼아 새로운 열망의 길을 떠나보자. 거기 '단단한 기포' 가 있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사고로 24시간 대수술에 뇌경색 겹쳐 절망

감각 · 언어 장애에도 병원비 감당 못해 재활치료조차 못 받아
목숨 걸고 탈북 했으나 15개월 아들과 가족 생계마저 막막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 ⑩ 마음의 눈을 뜨고 지혜를 밝혀 나가는 길(完)

▶ 한줄 요약
우리 인간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양심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 눈으로 마치 신의 눈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응시할 수가 있다.

양심의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라

서양 불교학자들은 부처님이 왕궁을 버리고 감행한 출가를 가리켜 '위대한 포기(The Great Reuncia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와 같은 위대한 포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생활의 포기였다. 하지만 출가란 가정생활의 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재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보다 넓게 세속적인 관심사 일체를 떨쳐버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 일에도 집착하지 않는 생활로 들어감을 뜻한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마저도 철저하게 포기함을 뜻한다. 일체의 세속적 인간에 대한 관심의 포기 속에서 인간의 약점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출가의 정신이다. 세 벌의 옷가지와 한 개의 밥주발밖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출가생활인 것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활 중에도 가장 낮은 방법인 밥을 빌어먹는 탁발에 의거했다.

이처럼 가장 낮고 밑바탕에 속하는 생활양식을 하고자 함은 권력에 의함도 아니고 가난 때문도 아니고 고행을 하고자 함에서도 아닌,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출가하여 스스로 택하는 방법이다. 인간 향상의 길에서 욕망을 조절하고 누르는 일을 첫째 안목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출가생활은 욕망을 조절하고 비움으로써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최상의 행복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혜로 탐욕을 조절함으로써 그 욕망의 절단을 꾀하는 것이 부처님이 설법한 해탈의 길이다.

고는 탐욕에 따라 존재하고, 도는 가난에 의하여 이룬다. 예수는 완전히 가난한 마음으로만 인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부처님은 완전히 가난한 마음과 정신으로만 도를 깨우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고통이란 무한한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모든 괴로움에서 떠나는 방법은 모든 욕심의 조절, 모든 욕심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현실적 · 사상적 · 정신적인 욕망으로부터 가난해진 삶에서만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욕심을 줄이고 조금은 부족한 그런 생활을 영위할 때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진실로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만족감은 우리의 마음이 얌전하게 가라앉았을 때만 아주 뿌듯하게 느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인간의 삶의 만족감이다.

부처님은 해탈의 길은 가난에 있다고 설했고, 예수의 하늘나라는 가난한 자의 나라라 했다. 가르침의 길은 마땅히 가난을 배워야한다.

세속적인 최고의 행복을 떠나서 인간 생활로서는 최하의 생활로 45년 동안 온 정열을 기울여 설법한 부처님을 따라 능히 자기를 다스려 맑고 바른 행위를 익혀 네 가지 진리를 깨달아 끝내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인간의 행복은 없을 것이다. 이에 이르면 비로소 사람들은 생사에 의하여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고, 걱정 · 근심 · 분노도 없이 다만 더 할 바 없는 평안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한가? 당신은 행복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 번 뒤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다. 우리 인간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양심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 눈으로 마치 신의 눈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응시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눈, 양심의 눈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나는 어떠했는가를 반성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길을 바라보며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자기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마음, 양심도 가지고 있다.

노년에 와서 괴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걸어온 길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결국 나의 삶이란 괴로움과 무거움을 걸머지고 걸어온 그것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나의 75년간의 전 생애에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주 정도나 될까?"라고 했다.

파스칼은 "초목은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불행하지는 않다. 불행한 것은 다만 인간일 뿐이다.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점에서 위대한 것이다"라고 했다.

참으로 살아 있는 인간이라면, 주어진 불행을 바라보고 그 불행과 대결함으로써 무엇인가 해결점을 찾고자 해야 한다. 냉정한 성찰에 의해 행복이라는 가면이 벗겨지려는 것을 피하지도 말고, 또한 불행이라는 것이 쑤시고 들어오려는 틈을 막으려 하지도 말고, 오히려 더 떳떳이 다가오는 불행을 바라볼 수 있고 내게 오는 이 불행에 오히려 다가가 그 위에 내가 앉아 말없이 조용하게 주시하며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불행이 있다 하면 이를 똑바로 보고 정면으로 대결하여 이 불행을 넘어서서 더욱 힘찬 걸음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이 택한 길이었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길은, 이 세상의 불행을 통찰하여 이를 뛰어넘어서 피안의 자유와 행복한 생에 이르는 길, 그것이다.

부처님 출가 '위대한 포기'로 불려
욕망으로부터 가난해진 삶 실천해
참된 사람은 주어진 불행과 맞서고
뛰어넘어 피안의 세계로 가야한다

현대 물질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치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따지고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어디라도 다 앓고 있다고 보아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몸이 앓고, 마음이 앓고, 정신이 앓고, 사회도 앓고, 정치도 앓고. 모든 사람과 국가들이 안 아픈 곳이 없는 실정이다. 지구가 환경이든 인간이든 고통의 신음으로 가득하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실정이다. 아직 철이 안 든 어린아이들이나 완전히 돌아버린 정신병자가 아니면, 아프지 않다고 큰 소리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잘 견디어 내고, 스스로 추슬러 설 수 있는 힘을 갖자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며 오십 년 가까이 자리를 펴고 앓고 있는 늙은이가 아직도 이 글을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게 된 비밀을 이 책으로 써내는 것이다. 이 글을 써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 글을 써서 자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나는 앓는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써나가고 있다. 자리보전하고 정신없이 앓고 있을 몸이 이만큼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내 몫의 감사를 표해야 한다. 그것이 나처럼 앓으면서 지내는 환우들, 나처럼 가슴에 멍이 들어 억울하고 분한 사연이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힐 듯 괴로운 환우들이 정신과 마음만이라도 훨훨 털고 일어나서 스스로를 살려내야 한다는 내 경험의 외침이다.

그래서 이 글을 써가는 데에는 사실 번듯한 순서도 목차도 없다.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나처럼 아프고 억울한 환우들에게, 비록 육신에는 병이 들어 있어도 정신과 마음만은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 청정하게 살아가자는 정성으로 나의 비밀을 솔직하게 써낸 것이다. 그것이 어떤 병이건 간에, 비록 자리 펴고 누워서만 지낸다 하더라도 생각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보람 있는 삶도 꿈꿀 수 있고, 주어진 몫을 이행해 갈 수도 있고 생각이 미치게 되면, 저절로 일어나 앉아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진다.

그러노라면 사는 맛도 슬며시 일어나고, 따라서 생각도 손가락도 근질근질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이다. 생각이 살아나면 삶 전체가 활기가 돋고, 손가락이 꼼지락거리기 시작하면 무엇이라도 만들어내게 된다. 이런 것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만들고 찾고 하면서, 계속 앓고는 있지만 아픔도 때때로 잊을 수 있고 그래서 신이 나고 기쁘기도 하여 슬쩍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희망도 갖기가 어려워진 신세가 되었지만, 마음과 정신만은 밝게 살겠다는 마음의 의지이다. 다음 생을 위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 아무런 희망이나 욕심을 낼 수 없기에 마음속은 깨끗하다. 이런 깨끗한 마음은 건강하게 펄펄 뛰어다니며 현실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로서는 가져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보물들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밀려난 병자들이니까 우리의 마음은 비워졌고, 그래서 깨끗하다. 병들고 늙은 상황에서 불쌍한 나 자신을 꾸겨진 휴지 조각처럼 아무렇게나 막 버려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런 속에서라도 비집고 나와서 스스로가 당당하게 일어설 것 인가를 택할 수 있는 것도 앓고 누워 있는 나 자신이라는 점을 부디 기억하길 바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은 그렇게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그림으로 부처님의 모습도 모셔 내오고, 이런 글도 써가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나를 찾아온 사십 년도 넘는 오랜 친구의 이름이 통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었다. 한참 동안이나 같이 산보를 하고 차도 마시면서도 기억이 안 나서, 결국은 솔직히 고백을 했다.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친구의 이름이 탁 떠올랐다. 이렇듯 깜박거리는 늙은 병자이지만 아직도 멀쩡하게 내 몫을 하고 있다. 아프면 자주 잊어버리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끔씩 실수를 하여 속이 상할 때도 많지만, 나이가 많은 탓이니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또 그런대로 아무렇지 않다. 그리고서는 계속하여 부처님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나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고 부처님의 마음공부를 계속 마음속에 담고 가련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최혜자 지음 / 운주사 펴냄〉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법상스님의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법상스님만의 논리적이면서도 편안한
생활법문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토) 22:30



자현·광우스님의
끝판! 맛수다

자현스님과 광우스님의 '맛있는 수다'
재미있는 불교공부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19:30, (일) 14:00



동훈스님의
다음생 이야기

오늘 좋은 씨앗은
내일 좋은 열매!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일) 21: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tv 295번 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마음 한생각 잘 돌린다면 밝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대구의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죽고 살고 하는 이 도리가 바로 부처님 도리입니다. 우리 삶을 떠나서는 부처님 법도 없을 것이고 우리 자체가 없이는 부처님도 없을 것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한마음으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찌 달리 종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삶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불자로 하여금 광대무변하며 더하고 덜함도 없는 이 진리 자체가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마음을 넓게 써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고정됨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체 만물만생이 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돌아가고, 과일나무도 10리 안팎으로, 아니 20리 30리라도 서로 말 없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하고 열매를 맺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체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를 모시면서 말로만 그르니 옳으니 시비를 해서야 어떻게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마음과 마음의 전달로써 자녀들과 부모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살림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본과 마음을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그 자체가 같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체 만물만생이 다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또 먹고 삽니다.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광력이나 자력 통신력 전력, 이것이 항상 우리들한테 재료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재료로 주어져 있으니 마음과 마음이 삼천 년 전이든 삼천 년 후든 언제든 전달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진리와 같이 부처님의 마음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4월 8일에만 부처님이 오셨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 계신 한 그 마음속에는 항시 부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앞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네 가지 재료가 다 있다고 그랬죠? 전력이나 자력 통신력 광력이 전부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고요. 주어져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림 · 최주현

만약에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한 바구니에 담긴 꽃다발 하나라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다 꿰뚫어서 맛을 알고 보고 감촉하고 그 모두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로 합쳐 여러분으로부터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나투면서 응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 보지 않아서 맛을 모르는 것은 생각도 나지 않듯이, 중생들은 마음을 널리 낼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내 몸 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을 널리 내시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아니 되시는 게 없고, 어느 모습 하나 부처 모습 아닌 게 없고, 어느 자리 하나 부처 자리 아닌 게 없고, 어느 생명 하나 부처 생명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한생각으로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만물만생을 다 내 마음 아닌 게 없이 나투시는데 대하여, 내 몸 바깥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기도나 하고 이러는 게 부처님 법인 줄 아시고 칠성 찾고 독성 찾고, 또 약사 찾고 지장 찾고 이렇게 갈갈이 나누어서 찾는데 말입니다,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한 아버지나 한 어머니가 자동적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고, 자동적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때에 따라서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무개야!" 하면 아들이 되고 "여보게!" 하면 사위가 되고 "형님!" 하면 형님이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뜻과 말과 행이 화해서 바뀌지면서 생활을 여여하게 해 나가듯이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놓고 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 부적을 안 하면 이사를 가지 못한다는 생각 자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여러분의 관습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봅니다. 이제는 개선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 한생각을 잘 돌린다면 너무도 광대무변한 도리에 의해 밝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법이며 우리들의 자유스런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절에서 예불을 모실 때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염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꽃을 공양 올릴 때도, 여북하면 꽃공양입니까? 일체 만물만생이 다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움을 꽃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초를 켜는 그 마음 자체를 바로 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기 물을 떠서 공양을 올리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향을 피우는데, 악한 것은 다스리면서 선하고 아주 똑바른 마음을 내서 굴리는 것이 바로 향을 피우는 것이며 마음의 향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생겼고 부처님도 생겼고 종교도 생겼고 상대성 원리가 모두 생긴 것이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어찌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발견하라 하는 겁니다.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전화를 받을 수도 없는 것과 같으니 바깥으로 찾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찾으세요.

법당에 가더라도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니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모든 것을 둥글려서 내 주인공에 놓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친구여! 나를 관리인으로, 시자로, 또는 심부름꾼으로 삼아 이렇게 몸뚱이를 끌고 다니니 모든 것은 다 당신이 하는 거야.'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집이 헐어지면 집에 들어 있는 주인이 고칩니까, 헐어진 집이 고칩니까? 반드시 집주인이 집을 고칩니다. 그렇듯이 제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끊어 낼 수 없고 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바로 자성 부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 있는 자생 중생들을 다스리면서 제도해야 여러분이 제도가 되고 깨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첫째 "계향" 할 때 말입니다, 먼저 내가 태어난 까닭에 계향이라는 것도 있고 계율도 생겼고, 또 스님 노릇도 하고 부처님 법도 배우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머릴 깎고 안 깎고 이걸 떠나서, 가정에서 살림을 하실 때에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이런 거지 내 탓으로 돌린다면 하나도 밉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지 누구 탓이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할 때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거기에 놨을 때에 미움도 사라지고 증오도 없어지고, 남의 탓으로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화목이 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니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내 탓으로 돌린다면 그게 바로

☞ 22면으로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자성 부처가 있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요, 또는 깨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요, 업보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계향이지 그냥 입으로만 부르라는 계향이 아닙니다. 250계든 280계든 일일이 개수로 따져서 어떻게 계를 지킵니까? 나 하나만 죽는다면 계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향 하나만 잘 지켜도 천차만별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으며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향이니, 이 세상 모든 만물만생이 근본에 따라서 하나로 돌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바로 주인공 선을 세워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거기 놓고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거기 놓고 '잘못 일어나게 한 것도 너니까 잘 일어나게 하는 것도 너지.' 하고 잘못되는 거는 한생각 잘 내서 돌려놓으면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향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냥 하찮게 듣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린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해 줄 때에 서로 조건 없는 사랑을 같이 할 수 있고,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재수도 있을 수 있고, 공덕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생활을 바로 여여하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혜향이니,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둘로 봄이 없이 관찰하고 둘로 보지 않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바로 혜향입니다. 그리고 느끼고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혜향입니다. 그러니 스님네들만 '정향 혜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둘로 보지 않는 사랑,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씨, 부드러운 말, 이것을 떠나서는 화목을 가져올 수가 없고 사랑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계의 나 자체를 물질계로 내놓으면서 우리가 서로 둘 아니게 굴리면서 참다운 삶을 보람 있게 누릴 것입니다.

해탈향이니, 만물만생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자생 중생들 모두가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 항상 밝아서 여여하니 바로 그것이 해탈향입니다. 항상 마음과 마음이 일체 만물만생하고도 전달이 되면서,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자생 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게 돼서 여여하니, 항상 밝아서 안팎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중생들을 둘로 보지 않고 제도하게 돼서 가고 오면서도 그대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해탈지견향이니, 삼라만상 만물만생을 생각하고 보살피되 밝게 보살핌이 항상 걸림 없이 구족한 까닭에 더하고 덜함도 없이 여여함을 바로 해탈지견향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부처님께서 "세 가지 조건이 있느니라. 너는 해탈지견향까지 이루었다 하더라도 첫째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둘째, 다 버려서 다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셋째, 너는 누가 보시를 해 달라고 하든지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일체 만물만생에게 나투어 줄 수도 있거니와 내 도량 아님이 없이 나투면서 아픈 사람에게는 약사가 돼서 응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관세음이 돼 주시고, 명이 짧은 자에게는 칠성이 돼 주시고, 좋은 데로 못 가는 사람에게는 지장이 돼 주시고, 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용신이 돼 주시고,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지신이 돼 주시고, 관청의 일이 벌어졌을 때는 독성이 돼 주시고….

천차만별로 어느 거 하나 아니 돼 주시는 게 없고, 아니 나투시는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백억화신이요, 천백억응신이요.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하면 법신이요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요 응신이라. 마음 하나가 이렇게 구족하고 이렇게 광대무변한, 평등공법이면서도 활궁공법이고 활궁공법이면서도 수레공법으로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누구나가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컵도 흙을 물에 개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 구운 것으로 어느 것 하나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컵이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수화풍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살다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데 합쳐져서 합성체로서 등장이 됐다가, 흩어지면 물로 갈 거는 물로 가고 불로 갈 거는 불로 가고, 바람으로 갈 거는 바람으로 가고 흙으로 갈 거는 흙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또다시 모이게 되면 또 모습을 바꿔 가지고 형성돼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주어지고, 현실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주어집니다. 미래가 주어지는 자체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미래가 따로 있고 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옥도 천당도 바로 현실에,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수화풍이 대두가 돼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여러분 앞에 충만히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도 마음과 마음, 정신계의 50% 물질계의 50%가 서로 상응하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한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맥동맥이 뛰듯이 말입니다.

지구가 우리를 끌고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자생 중생들부터 제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안팎으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쳐올 때도 내가 생각해 보고 내가 내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면서 상대방을 원망 안 하고 돌아간다면, 바로 상대방에서도 불이 켜지고 자기한테도 불이 켜져서 다 밝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생길 것입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말입니다,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신이 돼서, 부처님과 중생들이 둘 아니게 어떠한 문제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나무들도 무정물들도 생물 전체가 다, 어떠한 문제를 생각했다 하면 같이 통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한테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은 항시 어디에나 아니 나투는 데가 없어서 금속과도 같고 전력과도 같다 이 소립니다.

부처님이란 뭘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하는가. 내가 어느 거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거 할 때에 여러분이 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엄마가 됐을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내가 됐을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됐을 때, 형님이 됐을 때,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요리를 해서 드려야만이 맛있게 집어 잡술는지….

우리 마음은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마음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뭐가 놓여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이런 것도 다 캐치해 가지고 지금 한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크고 작음이 없이 여여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지 못하시고 항상 물질적인 문제에 의해서, 요것은 못 한다, 요것은 한다, 요것이 간다 온다…, 이러는 관습에 의해서만 살아나가고 계십니다.

좀 껑충 뛰어넘어 보십시오. 내 한생각에 의해 내 몸속의 모든 자생 중생들을, 즉 말하자면 일체 생명들,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고 바깥으로는 바로 마음과 마음을 조절하면서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서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선행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마음에는 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높지 않고 물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깊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디고 통하니까 그 속을 통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아무리 산이 높고 아무리 은산철벽이다 할지라도 마음은 통하는 겁니다. 마음은 어디고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마음을 넓게 쓰십시오. 둘로 보지 않는 눈으로 보고, 둘로 보지 않는 귀로 듣고 마음을 넓혀서 모두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옹졸하게 '요거는 요거고 조거는 조거다' 하고 적대시하게 되면 그 크나큰 진리를 타파하지 못하며 깨치지 못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구에 붙어 있는 생물인데 이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시기나 합니까? 지구가 버스라면 우리는 그 버스 안에서 네 집 내 집, 내 걸상 네 걸상,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고 온통 네 것 내 것을 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가요. 돈이 들어오다가도 '아이구, 이 집에 들어가 봤자 괴로움만 가져올 거야.' 하고 나간다구요.

또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가 내면의 정신세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내부에 있는 생명들, 의식들은 내 몸뚱이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어디로 헤매고 돌아다니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 줄을 모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소가 잘못 가면 "이랴!" 하면서 고삐를 잡아당기듯이 하나하나 다스리면서 거기다가 다시 놓아야 합니다. 나왔던 구멍에다 자꾸자꾸 다시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전에 한 말을 그냥 되합니다만, 예전에도 항상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온다고요. 물질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입력을 해 넣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살아나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지 누가 입력을 해 넣고 안 해 넣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어떻게 말을 했느냐,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팔자 운명과 고통,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모두를 그 나오는 데다가 되맡겨 놓으면 되입력을 하는 게 됩니다.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됐던 것이 다 없어지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나오는 데다가 놓는다면,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 한 구멍에다 되놓는다면 바로 앞서 입력됐던 것이 다 없어짐으로써 현실의 그릇이 비었다가 찼다가 비었다가 찼다가 하면서 항상 밝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여여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유스럽게 살 수밖엔 없겠죠. 그리고 자생 중생들이 다, 내가 마음먹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됨으로써 한마음으로 뭉쳐 준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이 모두를 잘 안다면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마는, 오늘은 어째 이 말을 좀 하다가 저 말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군요. 아마 여러분이 이러고저러고 이러고저러고 하니까 나 역시 그런가 봅니다. 하하하. 할 말은 너무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할 말을 제대로 못 할까요? 여러분한테 커다란 드럼통으로 기름을 퍼붓는다 하더라도 작은 그릇으로 받는다면 그냥 밖으로 쏟아질 테니까 그렇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각자의 그릇에 채워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스스로 받아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둘로 보지 않는 사랑,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말,
이것을 떠나서는 화목을 가져올 수가 없고 사랑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6월 6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 현불논단 |

지구가 아프니 우리도 아프다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물질문명 발달로 생활 안락해졌지만 그로 인한 환경파괴, 기후위기 초래 배달용기, 비닐봉지 등 쓰레기 양산 버리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것에 불과

보살은 원인, 중생은 결과 두려워 해 기후위기라는 결과 아닌 원인 살펴야 현 상황 만든 것은 자신임을 인지해야 지구의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온다

장마를 앞두고 연일 뉴스에서 "이번 장마는 역대급으로 비가 많이 올 것이다", "7월 한 달은 3일을 빼고 비가 올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얼마 전 괌을 강타한 태풍이 돌연 경로를 일본으로 바꿔 또다시 큰 피해를 입혔다. 이처럼 올해도 장마와 태풍 등 기후문제에 관한 불안한 뉴스가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

물질문명이 발달하며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락하고 편리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편리함을 맛본 인류는 그보다 더 편하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별한 날에 식사준비의 수고를 줄이기 위해 온 가족이 외식을 나가 추억을 쌓았으나, 경제가 발달하며 월급날이 되면 으레 아버지가 사온 통닭으로 기억되는 집 안에서의 특식으로 변모된다. 그러다가 폭발적인 생활편의의 발달과 함께 집 안의 구성원이 줄어들고 식사를 차리는 것조차 번거로워지며 배달음식이라는 것이 정착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식사문화의 변화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당연히 예측된 모습이다. 그러나 이 변화 속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다. 바로 쓰레기 문제다. 과거에는 식사를 준비하고 치우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식사의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키고 다 먹고 나면 비닐봉지에 일회용 식기를 담아 버린다. 즉 치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버린다는 개념은 그저 지금 내 앞에서만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사실은 다른 곳으로 치우는 것이다. 과연 어디로 치우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지만 더 확장해서 보면 지구에 산다. 다시 말해 그 쓰레기들을 치울 곳이 내 주변을 떠난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쓰레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날이 점차 더워짐에 따라 나만 시원하면 된다는 생각에 오후부터는 모든 집과 회사에서 냉방 기구를 사용하고,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기 위해 가까운 거리도 꼭 차로 다니는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곳곳에는 이 편리함이라는 것에 의해 자신만을 생각한 무의식적인 이기주의가 정착해버린 것이다.

'보살외인 중생외과(菩薩畏因 衆生畏果)' 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 는 뜻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걱정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 결과가 되어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매년 더 큰 걱정을 하며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이 지구에서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구에 사는 생명이 우리 인간만이 아니며, 또한 우리만이 지구에서 사는 마지막 인간인 것도 아니다. 그저 시절인연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어그러진 지구의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기후문제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그 극복책을 강구해야 하는 건 변함없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유발한 원인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알아야 한다. 결국 우리의 지구가 오염되어 아프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아픔과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만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내일은 늦는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종이컵의 사용을 줄이고, 에어컨 대신 창문을 열며, 배달박스의 비닐테이프를 떼어내는 작은 수고로움을 실천한다면, 반드시 내일의 우리에게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스스로 마련해줄 것이다.

社 說

대불청, 청년포교 전기 마련 기대

한국불교는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005년보다 불교인구가 약 300만 명 감소했다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불교계는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종교인구 부동의 1위 자리를 개신교에 내줘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미래세대라는 계층포교의 미흡으로 이웃종교 대비 청소년과 청년층이 비중이 가장 적었다는 점이다. 당시 결과에서 19세 이하와 20~30대 종교인구를 더했을 때 불교는 28.4%에 불과했다. 개신교 47.1%, 가톨릭 42.2%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이런 성적표를 받아든 이후 불교계의 가장 큰 화두는 언제나 미래세대였다. 조계종은 백년대계본부를 설립해 산하에 미래세대위원회를 조직했고, 여러 사찰에서도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최근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동국대, 조계종 포교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캠퍼스 포교에 사활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포교의 핵심 주체 가운데 하나인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해 말 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 국내 유치를 이끌어내며 한국불교의 저력을 세계에 확인시켰다. 대만과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웃나라와의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확고한 입지를 다진 셈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가오는 가을, 한국불교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잊지 말자. 청년포교는 늘 이제 시작이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미래세대의 관심은 사그라진다. 만해백일장, 사찰문화해설사 양성, 군장병 포교 등 포교단체로서 대불청의 활동이 불교계 모범사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가적 대응을

일본 정부가 내년 6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쏟아붓겠다고 결정하자 시민들을 비롯한 불교계가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 규탄에 나섰다. 우리 정부에는 "이웃나라들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로 무책임한 결정을 용납하면 안 된다"며 명확한 반대의사 표명과 국제법 제소 등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계는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 공격"이라며 연일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과 시위 등 총력 대응 중이다. 후쿠시마 발전소와 가장 인접국가인 한국은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이기에 완벽하고 철저한 검증 없는 오염수 방류를 멈추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불교계는 일본정부가 2021년 4월,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규탄활동을 펼쳐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주기적인 기도회를 통해 "재앙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높여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방한한 올해 5월 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통해 규탄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불교환경연대 역시 환경단체들과 연계, 본격적인 반대활동에 나섰다.

핵방사능 오염수 해양 토기 저지 서명운동에 나서며 캠페인과 1인시위에 자발적으로 나선 스님들도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국가인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바다를 공유한 대만과 중국 등 동아시아 전체 시민들의 건강과 바다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엄중한 사안이다. 시민과 불교계의 뜻을 헤아려 정부도 분명하고 강경히 대응하길 기대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결과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저 나름대로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이 나의 재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장자〉에 보면 '쓸모없는 나무가 산을 지킨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휘어진 나무는 휘어진 대로 가치가 있고, 생채기가 있는 나무는 그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궁전의 대들보가 되어야 하고, 웅장한 집의 대들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쓸모가 없어서 산을 지킨다는 것은 쓰임이 없어 생명을 보전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쓰임이 없다고 하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서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했을 겁니다.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서 한여름의 땀을 식힐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나무의 이런 역할은 잊어버리고 결과만을 따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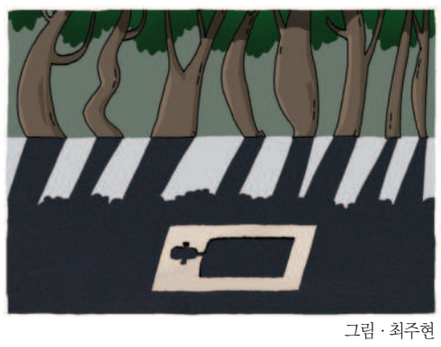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꼭 성공해야 한다' 는 결과를 향해 가면 자신이 힘이 듭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 해야겠다' 는 생각으로 일을 하다보면 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 산정상이 목표라면 참으로 재미없을 겁니다. 산을 오르면서 새소리도 듣고, 계곡물에 손도 씻어보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도 보고, 시원한 바람을 만나고, 낮게 핀 들꽃도 들여다보는 그런 재미가 더 클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먼 길을 가면서 그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오로지 산 정상을 목표로 부지런히 올라간 사람은 진정 산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성공과 결과에 집착하다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잘되면 좋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이 적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합니다. 기성세대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돈 많이 벌고,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런 사람만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앞에는 자신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이 필요로 여기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 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